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 부록 : 친구들 · 2002년 3월호

리아호나

왜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희생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 주님께 무엇을 기꺼이 바치기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희생의 법" 10쪽 참조, 휴 비 브라운, "까치밥 나무" 22쪽 참조.

4 15229 83320 7
22983 32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 부록 : 친구들 · 2002년 3월호

리아호나

표지
앞: 해리 앤더슨, *마므레 평원의 아브라함,*
뒤: 제리 하스톤,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희생의 법", 10쪽 참조

***친구들*란 표지**
어느 곳에 살든 어린이들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공통된 친구가 있다. 바로 그들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뉴스 속의 친구들", 12쪽 참조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성령과의 교통**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8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10 **희생의 법** 엠 러셀 밸라드 장로
25 **방문 교육 메시지: 경전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킴**
28 **역경에 맞서는 힘**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
36 **말일성도의 소리: "영광을 받기 위한 준비"**
신앙의 힘 마리벨 헤레라 차콘
조정 팀에서 배운 교훈 움베르토 에티 카와이
머나먼 여정 매비스 그레이스 존스
"그들을 찾았어요!" 매들린 커츠
48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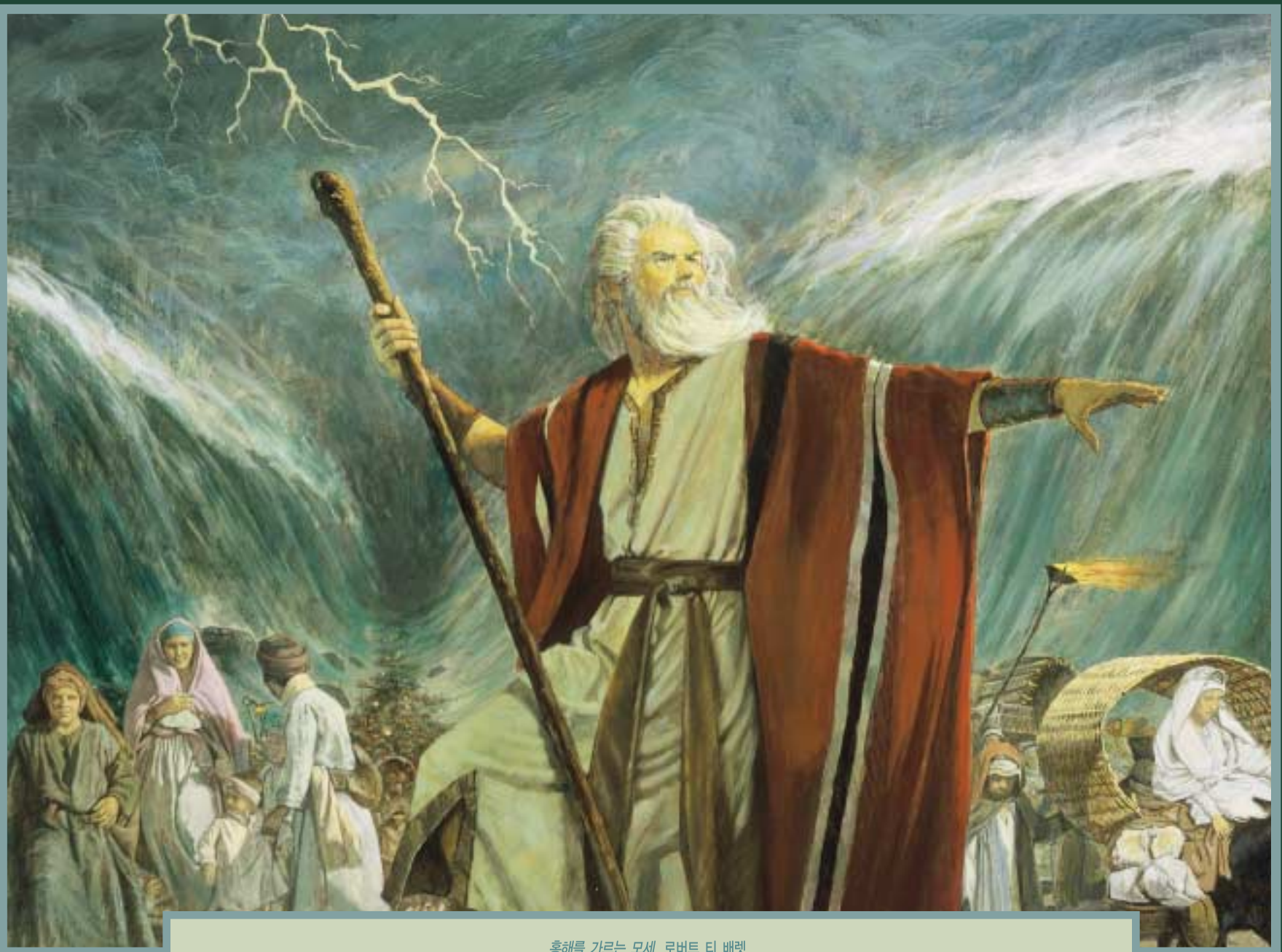
청소년란

21 **형제를 용서함** 디오사플로르 템블러
22 ***리아호나* 고전: 까치밥 나무** 휴 비 브라운 장로
26 **기차 안에 머무십시오** 글렌 엘 페이스 장로
42 **말씀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44 **한 걸음 내딛으며** 제인 포스그렌

친구들

2 **예언자와 사도께서 주신 말씀: 경건** 엘 톰 페리 장로
4 **마음 속의 속삭임** 윌라드 로산더의 이야기를 앨리사 맥브라이드가 전함
7 **신약 성서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어버린 은전**
12 **뉴스 속의 친구들**
14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집** 비키 에프 마쯔모리
16 **"나와 같은 자라야"** 스펜서 제이 콘디

28쪽 참조



홍해를 가르는 모세, 로버트 티 배렛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21)

리아호나 2002‡ 3øE ,`f3¨£
22983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젠슨
고문: 제이 켄트 졸리, 더블류 롤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 리차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 래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 스코트 밴 캠펜
선임 디자이너 : 섀리 쿡
디자이너 :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 제인 앤 피터스
생산 :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데니즈 커비, 켈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지털 교정 인쇄 :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 조이스 핸슨

통　권: 제432호, 제39권, 제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샬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랜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rch 2002 No.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십일조 결산을 다룬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6년에 침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질 때 이 잡지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 방문하는 동안, 그리고 아직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하면서 이 잡지가 선교 사업에서 발휘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2000년도 12월호 기사인 "십일조 결산의 중요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는 제가 감독으로서 십일조 결산 접견을 성공적으로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릴도 마르틴,
브라질 디아데마 스테이크
빠르께 도로떼이아 와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리아호나(우크라이나어 판)를 읽고 성신을 매우 강하게 느꼈기에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종종 저의 영적인 시련들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이며, 제 친구들은 이 교회와 교회의 표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아직 그들의 견해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강하게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담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분은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친구, 친척, *리아호나*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이 잡지에는 훌륭한 간증과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을 때마다 제 간증은 더욱 강해집니다.

옐레나 시보플라야스,
우크라이나 체르니히프 첸트랄니
키예프 선교부

이 잡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잡지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리아호나*(러시아어 판)를 집으로 가져올 때마다 책은 사라집니다! 다음 날, 교회 회원이 아니신 아버지께서는 그 책을 직장에 가져가서 끝까지 읽으셨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회원이 아닌 어머니께서도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어 아침 내내 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특히 2001년도 3월호 "일본: 밝아 오는 동방의 빛" 기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리야 코노바로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그
첸트랄니 지부

개인적인 계시는 진리에 대한 간증과, 영적인 일 및 세상적인 일에 대한 인도로서 옵니다. 말일성도는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과의 교통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몇 년 전에 열린 한 기자 회견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귀하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힝클리 대관장님은 "교회의 급속한 성장"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지 이제 17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됩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신앙의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터(에베소서 2:20 참조)라고 부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는 조직, 칠십인 정원회, 일반 회원들의 신권 지도력, 선교사 조직, 복지 프로그램, 성전, 가족 역사 사업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에는 또다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이유들을 넘어섭니다. 1839년에 요셉 스미스와 당시의 미합중국 대통령 마빈 반 뷰렌 사이에 있었던 한 대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담하는 동안 대통령은 우리에게 우리 종교와 다른 종교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요셉 형제는 침례의 형식과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항들은 성신의 은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2)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곧 놀라운 성신의 은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예언자 요셉의 답변은 매우 영감 받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한복음 14:16)

빛과 이해

이 강력한 은사로 인해 지도자들과 모든 합당한 회원은 성신의 은사와 성신의 동반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구성원 중 한 분으로서 영감과 계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은사의 결과로 교회가 조직된 이후, 지도자와 회원은 의로움과 선함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는 계속되는 계시와 영감을 누려 왔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영감과 계시는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이므로, 교회 안에서 행해진 일들의 근본에는 강한 영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이는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교회 회원들의 만남과 모

사진 삽화: 데릭 이스라엘스, 사진 촬영: 도 부사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번영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회원들이 받는 성스러운 인도 때문입니다. 이 인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1820년 봄, 우리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제한적으로 말일성도들에게만 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 외의 사람들을 포함한 철학자들뿐 아니라 마호메트와 공자와 종교 개혁가들과 같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진리는 모든 민족을 계몽하고 개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주어 오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대관장단의 성명", 1978년 2월 15일)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의 구원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의 한 요소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어떠한 인간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6:58)

개인적인 계시

안수례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말일성도들은 삶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뿐 아니라 작은 일상사에서도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부름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 대한 계시의 권리는 우리 자신의 청지기 직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에 불과했으나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이 무시무시한 거인에게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온 영감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 어린 소년의 신앙과 결의에 매우 감명을 받아 그에게 골리앗과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연소함과 무장하지 않음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왔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사무엘상 17:47)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힘차고 정확하게 물매로 돌을 던졌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깊이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져 죽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살아 계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자유로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끌었던 백성들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을 덜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이성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 줍니다. 그분은 개의치 않으십니까? 그분은 목소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휴가를 떠나셨습니까? 그분은 주무십니까? 이 각각의 질문들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확실한 말로 그분의 신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6~69)

그림: 글렌 에스 홀컨슨, 첫번째 시현

교회가 번영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회원들이 받는 성스러운 인도 때문입니다. 이 인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1820년 봄, 우리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베드로가 받은 것과 똑같은 증거를 우리는 성스러운 지식으로 갖고 있음을 간증하고 선언합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진리에 대한 간증과, 영적인 일 및 세상적인 일에 대한 인도로서 옵니다. 말일성도는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지 않고서 어느 누가 "누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일성도들이 죽음이나 상해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영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인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척자 여행(1847년)으로부터 윈터 쿼터즈로 돌아갔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럽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보스턴으로 가서 뉴잉글랜드와 캐나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 그들을 시온으로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으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무리의 마지막 그룹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무리는 약 백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질 때 피츠버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떠나려는 첫번째 증기선으로 갔습니다. 저는 선장을 만났고 그 증기선에 우리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저에게 '너와, 너의 일행 모두가 저 증기선에 타서는 안 돼.'라고, 그것도 매우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저 그 말에 따랐습니다. 물론 저는 선장에게 가서 좀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배는 떠났고 강을 따라 겨우 5마일 정도 갔을 때(약 8킬로미터) 배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백 명의 사람이 불에 타 죽거나 익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영에 순종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증기선에 탔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selected by G. Homer Durham [1946], 294~295쪽)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계시와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1)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사진 삽화: 데릭 이스라엘슨

2) 신성한 메시지의 수신자로서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춘다.

3)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

4)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응답을 구한다.

저는 영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인도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인생의 영화로운 보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에 이르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와 영감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내장되어 있는 "수신기"는 주파수를 잘 맞추면 신성한 대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욥기 32:8) 필요하다면 니파이처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니파이일서 4:6) 완전히 영에 이끌려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노스는 "내가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이노스서 1:10)라고 말했습니다.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의 영은 신성한 확신으로 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성신)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들은 주님의 목소리는 어떠했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바람 후에 지진"도 아니었으며 "지진 후에 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열왕기상 19:11~12 참조)

안수례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말일성도들은 삶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뿐 아니라 작은 일상사에서도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들리는 영의 목소리는 속속들이 속삭이는 능력과 모든 것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5:6 참조) 경전은 이 음성이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보라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듣는 자의 심령을 꿰뚫었고"(힐라맨서 5:30)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에 의해 사람의 마음에 영감을 불러 오시며 이것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일 당시에 해롤드 비 리(1899~1973) 장로는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열 살이나 열한 살 정도의 어린 아이였을 때 얻은 단순한 간증으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서 저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가실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이리저리 할 일을 찾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 근처의 울타리 너머에는 소년의 호기심을 발동시킬 만한 다 쓰러져 가는 헛간들이 있었습니다. 모험심이 많았던 저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목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어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참 멀리 떨어져, 밭 저편 끄트머리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저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Divine Revel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5 October 1952], 5쪽)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계시

모든 충실한 교회의 회원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는 사람은 이 지상에 단 한 사람입니다. 윌포드 우드럽(1807~1898)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없이 단 하루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61쪽)

한 회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매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합니다.

"본부든 지역 교회든 전세계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매일 계시로 인도되어 교회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일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 증거를 하고, 무엇을 말할 지 알며, 무엇을 행해야 할 지 알고, 또한 계시의 영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은 4대 경전에서 밝혀진 대로 말일성도의 마음 안에서 매일 계시의 영에 따라 분명해집니다.

"신앙은 매일 생활에서 나타나는 증거들로 인해 충실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증거들은 결혼, 직업, 가정 문제, 사업 계획, 공과 준비 및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들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사실상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모든 말일성도들은 계시의 영으로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대관장이 그 진리를 말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에 서서 왕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영을 가진 모든 충실한 개개인들을 축복하십니다.'"(Roy W. Doxey, *Walk with the Lord* [1973], 173~174쪽; 원문에 강조 표시함)

오늘날 세상의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지상의 예언자는 교회의 대관장으로 봉사하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 분은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170년 남짓한 세월 동안 그렇게 극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왜 점점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주요한 이유는 신성한 계시와 영감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는 기쁨을 향유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살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성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 아래 이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미약한 시작으로부터 오늘날의 위대한 영적 세력이 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놀라운 성신의 은사를 향유할 권리는 침례 직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부여된다.

2. 성신의 은사로 인해 회원들은 삶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뿐 아니라 작은 일상사에서도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다.

3. 성신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ㄱ)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ㄴ) 신성한 메시지의 수신자로서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춘다. (ㄷ)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 (ㄹ)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응답을 구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

살아 계신 예언자의

성약의 백성

"여러분은 성약의 백성입니다. 침례 받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온 생애 동안 함께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매주 여러분은 성찬을 취합니다. 성찬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성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약하십니다."[1]

세상의 선함에 더하여

"우리 모두는 신성한 생득권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므로, 우리 안에는 선이 있으며 또한 그 선함을 가꾸고 키워 분명히 나타나게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선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2]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

"오해는 무지와 의심에서 자라납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문화들을 이해하게 됩니다."[3]

선한 말일성도가 됨

"선한 말일성도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선하고 예의바르며 친절하고 정중하고 다정하며 따뜻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받아 들이셔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일의 성도가 됩시다. 조금 더 높게 일어서고, 고개를 들어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갑시다."[4]

주님의 축복에 합당하게 됨

"매일 밤 매일 아침 무릎을 꿇으십시오. …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뺏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갖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슴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분은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5]

충실한 십일조를 바침

"이 교회에서 충실한 십일조를 바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매우 사랑하시어 하늘 문을 열고 그들 위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 왔습니다."[6]

희망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으며, 자세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7]

상호부조회

"이 주목할 만한 [상호부조회] 조직에는 우정 증진과 훌륭한 봉사의 기회들, 계몽과 교육, 곤궁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돕는 일 및 다른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상호부조회는 소중하고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들과의 우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슬픔의 때에 위로를 줄 것이며 역경의 때에 축복을 줄 것이며, 여러분과 유사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특별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8]

주

1. 뉴칼레도니아 Noumea 모임, 2000년 6월 17일.
2. 보스톤 글로브 인터뷰 기사, 2000년 8월 14일.
3. 연설, 내셔널 프레스 클럽, 2000년 3월 8일.
4. 유타 옥든 지구 대회, 2000년 5월

왼쪽 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 오른쪽 사진 삽화: 조티브 번더슨

말씀

21일.

5. 아메리칸 사모아, 파고 파고 모임, 2000년 6월 17일.

6. 솔트레이크 제10와드 재헌납식 말씀, 2000년 1월 2일.

7. "Standing for Something"에 관한 기자 인터뷰, 2000년 2월 11일.

8. 브리감 영 대학교 동창회 영적 모임, 2000년 9월 12일.

매주 취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성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희생의

희생의 법의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뉴욕 주 팔마이라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일리노이 주 나부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의 초기 역사를 되살피며,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감수한 엄청난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겸손한 순종에 대해 생각하던 중 저는 희생의 법의 영원한 본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은 구약 성서 시대와 신약 성서 시대 그리고 몰몬경 시대에 실행되었습니다. 신약 시대 동안 실행 방법이 바뀌기는 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이 성취된 후에도 희생의 법이 지닌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동물의 희생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소 섬뜩한 느낌을 주는 이 희생의 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그런 행위가 사랑의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희생의 법의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들은 아담과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희생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희생의 법의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미 나의 마음에 정하였음이니, 곧 *나*

그림: 존 스코트, *마지막 심판*

법

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보아*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98:14~15)

희생의 법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 결과 이 과정은 때때로 어려운데, 그 까닭은 이 과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교리와 성약 76:62) 거하는 해의 왕국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완전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교리와 성약 20:59) [하는 것이] …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91쪽)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희생의 법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희생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먼저 구세주를 믿는 신앙 없이는 누구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첫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에 따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는 신앙의 원리와 희생의 원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할 충분한 권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모든 세상적인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된다. 인간이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바치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을 때 그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실로 그의 희생과 제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헛되이 그분의 면전을 찾지 않았고 앞으로도 찾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그는 영생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얻을 수 있다."(*Lectures on Faith* [1985], 69쪽)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임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지식은 희생과 순종을 통해 오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에 평안을 속삭여 주고, 마침내는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 확신을 받게 됩니다.

희생이 가르쳐 주는 것

희생은 우리 자신에 관하여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무엇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트루만 지 매드슨 형제는 휴 비 브라운(1883~1975) 부대관장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은 대관장단 제2보좌와 제1보좌로 봉사한 사도였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헤브론이라는 한 골짜기에서 매드슨 형제가 브라운 부대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브라운 부대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후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매드슨 형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거의 이렇게 말할 뻔 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그의 후대를 이을 유일한 희망을 바치라고 명 받았습니까?'

"거의 아흔 살에 가까웠던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이 질문에 관해 이전에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 분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The Highest in Us* [1978], 49쪽)

이제 희생의 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또다른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고대에, 피흘림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을 상징하고 예견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담은 제단에서의 희생 제물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모세서 5:7)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희생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교리와 성약 138:12~13 참조)

이것에 관한 가장 명확한 교리적 설명의 일부를 바로 몰몬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위해 실행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니파이이서 11:4 참조)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 행하여야 하리니, …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으매"(니파이이서 25:24~25)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예표라 생각하여 …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였느니라. … 모세의 율법이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심을 북돋아 [주었다]"(앨마서 25:15~16)는 구절을 앨마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대에 주께서 인간들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분께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명하셨는데 … 이는 인간들이 구세주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죄 사유함을 위해 대속의 권세에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60~61쪽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할 충분한 권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간증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한 젊은이에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하고 분투해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제 친구에게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희생하고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희생을 바치라는 계명을 받고 있으나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바치라는 계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는 우리가 자신을 좀더 성스럽고 거룩하게 할 때 얻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희생의 법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 이 계명과 또 다른 여러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 우리는 좀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즉 좀더 우리 주님처럼 됩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96쪽 참조)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신성하게 되는 것" 또는 "신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의 율법

희생의 법에 대한 첫번째 가르침은 복음의 다른 원리들과 마찬가지로 전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충만함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구세주의 사명과 미래에 그분이 하실 속죄의 희생에 관해 알고 있었으며 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로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1절로부터 우리는 "어린 양의 피"(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와 우리의 간증으로써 사탄을 이겨 낼 수 있음을 배웁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셨고,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은 멀리 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희생의 법을 주시고 인간을 위해 구세주를 세워 주시어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상에 놓여지기 전에 전능하신 분이 선택하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98쪽 참조)

아담과 이브는 희생의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물이 포함되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밭에서 나는 첫 열매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문없이 순종했습니다.(모세서 5:5~6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은 이 점을 지적

그림: 앨빈 기틴즈, 요셉 스미스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양 떼 또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The Atonement", *Instructor,* March 1959, 66쪽) 역사상 가족이 먹을 식량조차 확보하기 매우 힘들었을 시기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수입원 중 가장 좋은 것들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신앙에 대한 참된 시험이었으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는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께 희생을 바쳤습니다.

구세주께서 최후의 희생을 치르신 후, 성찬 의식이 희생 의식을 대치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생은 제물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닌 반항적인 성향으로 인해, 희생의 법의 실행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의식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율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 동안 희생의 법 아래 제물의 수는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모세의 희생 제물은 다섯 가지 주요 제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두 개의 주요한 범주, 곧 의무적으로 바치는 제물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로 나누어졌습니다. 의무적인 제물과 자발적인 제물의 차이는 십일조와 금식 헌금의 차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희생 제물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혈통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희생 제물에서 구세주와 가장 유사한 부분은 바로 제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몇 가지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택함을 받고 안수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메시야라는 히브리 칭호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칭호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동물은 그 생명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셋째,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곧 신체적인 결점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넷째, 희생 제물은 정결하고 합당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희생 제물은 집에서 사육된 것, 다시 말해 야생 동물이 아니라 길들여진 것이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레위기 1:2~3, 10; 22:21 참조) 여섯째와 일곱째, 아담이 바친 최초의 희생 제물이었고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가장 흔한 희생 제물이었던 그 동물은 첫번째로 태어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출애굽기 12:5; 레위기 1:3; 22:18~25 참조) 여덟째, 곡식 제물은 가루로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는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생각나게 합니다.(요한복음 6:48 참조) 아홉째, 바쳐진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고린도전서 15:20 참조) (See also Bible Dictionary, "Sacrifices"; Daniel H. Ludlow, editor,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umes [1992], 3:1248~1249)

왼쪽 그림: 헤리 앤더슨, *십자가에 달리심의 일부*; 오른쪽 위 그림: 멜 파슨, *희생 제물을 바치는 아담과 이브의 일부*; 오른쪽 아래 그림: 포니 클라크, *구세주를 기억하여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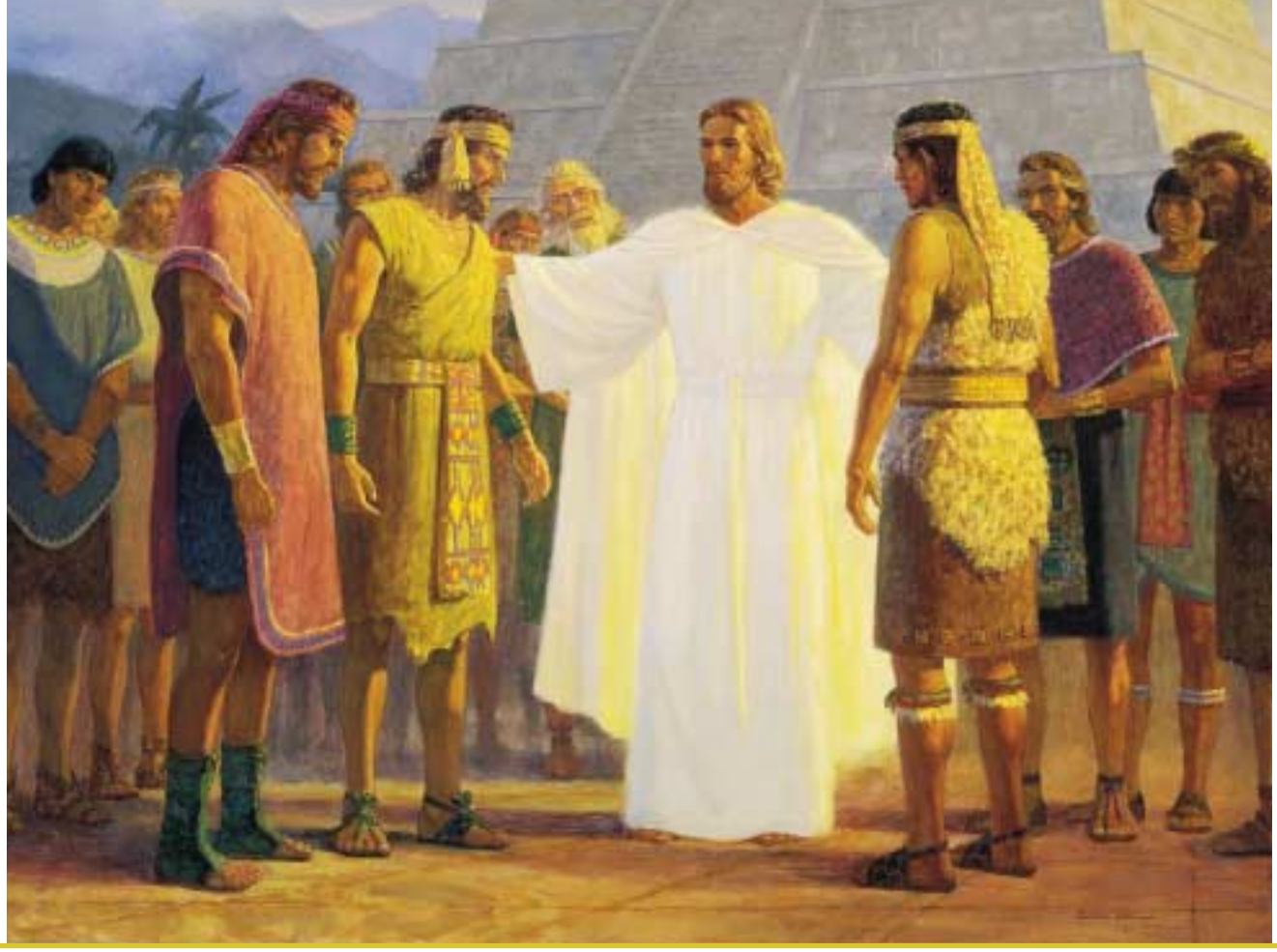


그림: 게리 엘 캘, *니파이인 새 제자*

예수께서는 더 이상 번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바쳐야 한다고 니파이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동물이나 곡식을 요구하시지 않고, 대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율법의 성취

모세가 받은 헌납 제도에 있었던 희생의 율법은 신약 성서 시대에도 계속 실시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장래에 있을 자신의 속죄 희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율법의 각 요소들을 규정하셨던 구약 성서의 여호와였습니다.

그분은 그 율법을 성취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며,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라고 하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앰율레크는 이렇게 율법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최대 최후의 희생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리라 … 피 흘리는 일은 끝날 것이요,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리니 …

"또한 보라 모든 율법의 의미는 이러하니, 작은 말씀들이 모두 낱낱이 마지막이 될 큰 희생을 의미함이라.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곧 최대 최후의 희생 제물이 되시리라." (앨마서 34:13~14)

여기,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희생의 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성취되었더라도, 희생의 법의 원리들은 교회의 교리의 일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생의 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최후의 희생을 치르신 후, 이 율법의 실행에서 두 가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성찬 의식이 희생 의식을 대치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 변화로 인해 희생의 초점이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서 사람 자신으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생은 *제물*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찬이 동물의 희생을 대치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이 둘 사이의 깊은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과 성찬은 모두:

■ 사람의 태도와 합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아모스 5:6~7, 9~10, 21~22; 니파이삼서 18:27~29; 모로나이서 7:6~7 참조)

■ 아론 신권의 의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에 의해 집행됩니다.(교리와 성약 13:1; 20:46 참조)

■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누가복음 22:19~20; 앨마서 34:13~14 참조)

■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상징물을 사용합니다.(누가복음 22:19~20; 모세서 5:6~7 참조)

■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줍니다.(레위기 22:21;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 정규적인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경우에도 집행됩니다.(레위기 23:15; 교리와 성약 59:9~13 참조)

■ 상징적으로 속죄를 의미하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레위기 7:16~18; 마태복음 26:26 참조)

■ 회원들이 직접 한 번 이상 참여하는 유일한 구원 의식입니다.

■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제공해 줍니다.(레위기 19:22; 니파이삼서 18:11; 모세서 5:7~8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복음의 권세를 통해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 이것은 다른 의식[동물의 희생]에 의해 상기되었습니다. 그 의식은 절정의 시기에 일어나야 할 위대한 희생의 모형이었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02쪽 참조)

우리 자신을 희생함

필멸의 성역을 베푸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의 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법이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설명하시면서, 그분은 더 이상 번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파이삼서 9:19~20; 교리와 성약 59:8, 12 참조)을 바쳐야 한다고 니파이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동물이나 곡식을 요구하시지 않고, 대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 희생의 법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인적 희생은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 놓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재한 동물적인 본성을 기꺼이 올려 놓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7쪽 참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징적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 제단 위에 올려 놓았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첫번째 가장 큰 계명,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는 계명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들을 극복하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떻든 간에 그분을 섬기겠다고 성약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생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크고 둘째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냐민 왕은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야서 2:17)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가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희생은 순수한 사랑의 발현입니다.

종종 한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실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희생과 관련하여 교회의 다른 많은 회원들도 그분들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음을 알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예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증조부이신 헨리 밸라드는 영국에서 교회에 들어오셨고, 미국으로 건너와 서부 유타로 오는 동안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의 증조모이신 마가렛 맥네일 밸라드도 열한 살의 소녀로 미대륙을 횡단하면서 많은 고난을 견디어 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개척자 이동로를 따라

여행했던 저는, 충실하신 증조부모님이 어떻게 이 여행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셨는지, 평생 동안 그 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해내실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아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 밸라드는 40년에 몇 달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로간 제2와드의 감독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 분의 헌신적인 아내 마가렛은 30년 동안 상호부조회 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왕국에 대한 우리의 전심 전력은 우리의 충실한 조상들의 그것과 비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희생이 여전히 필수적이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일이 이제껏 그래 왔던 것처럼 현재에도 전심 전력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 주는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얼마 전에 저는 볼리비아의 라파스에서 한 지구 대회를 감리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커다란 희생과 결의를 보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부터 왔습니다.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모여 있는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나이드신 형제님의 셔츠 색깔이 가슴 아래부터 다른 색깔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셔츠의 윗부분은 흰 색이었으나 아랫부분은 붉은 갈색이었습니다. 그 분과 그 분의 일행 세 명은 모두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는데, 지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부분의 길을 걸어서 여러 시간 동안 여행했고, 가슴팍 깊이의 강을 두 번이나 건넜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트럭을 세워 타고는 여행의 마지막 두 시간 동안 트럭의 짐칸에 서서 왔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희생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저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충실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밸라드 장로님, 장로님은 주님의 사도 중 한 분이십니다. 제 형제들과 저는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는 무엇이라도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및 와드 또는 지부 및 지방부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입니까?

희생의 축복

우리는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참된 원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58년에 솔트레이크시티 교외 지역에 위치한 한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역의 회원들이 건물 건축 비용의 50퍼센트를 냈습니다. 건물을 헌납하기 몇 주 전에 저는 지도력에 관련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들 중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가까스로 가계를 꾸려가는 젊은 가족들로 이루어진 우리 와드는 30,000달러의 추가 모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의무에 관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지를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기부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신권회를 갖기 위해 형제들이 모였을 때, 저는 저의 할아버지 멜빈 제이 밸라드 장로가 1919년 1월 7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사도로 성임되셨을 때 전했던 간증을 읽어 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17년에 지침이 될 만한 전례가 없던 한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할아버지의 경험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시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 — 이 방으로 인도되어 왔고,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에게 주어질 다른 특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돋우어 올려진 연단 위에 제가 상상해 본 중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저는 앞으로 이끌려 나가 그분께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 그분은 두 팔로 저를 감싸고 제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슴에 끌어 안으셨고 저의 온 몸이 전율할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끝난 후, 그분의 발에 엎드렸는데 그 발에서 못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못 자국들에 입을 맞추었을 때, 커다란 기쁨이 제 온 몸을 통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참으로 천국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 내가 합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

삽화: 베다니 스카우

한 나이 드신 형제님의 셔츠 색깔이 가슴 아래로 붉은 갈색이었습니다. 그 분과 그 분의 일행 세 명은 지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부분의 길을 걸어서 여러 시간 동안 여행했고, 가슴팍 깊이의 강을 두 번이나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생이 끝나는 날 그분의 면전에 돌아가 그때 그분의 면전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현재의 나와, 미래에 내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멜빈 알 밸라드,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66쪽)

주님의 영이 그 날 우리 와드의 신권회에 있던 충실한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에 대한 더 큰 신앙으로 우리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날, 가족들은 감독인 제가 요청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개인적인 희생들을 감수하며 헌금을 갖고 줄을 이어 저의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쯤 와드 서기는 30,000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희생은 참으로 우리 와드의 회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단합되고, 서로를 보살피고 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 본 적이 없습니다. 커다란 희생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과 봉사의 복음 안에서 참된 영으로 결속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헌신과 봉사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풍성함이라는 시험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의 희생의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살펴봅시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축복들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깊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9:21) 희생의 법의 정신은 감사함을

촉진시켜 줍니다.

우리는 커다란 번영의 시기에 살고 있으나, 역사에는 이 번영이 우리 개척자 조상들의 육체에 가해졌던 물리적인 박해 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빈곤과 박해와 억압을 우리는 견뎌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살펴봅시다. 상대적으로 가난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했던 그 때처럼 기꺼이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봅시다"(*Deseret News Weekly*, 1870년 10월 26일, 443쪽)

한 가지 두려운 점은, 우리 가운데 희생의 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면, 간증은 약해질 것이며,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과는 달리 간증의 뿌리가 신앙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 인해 축복 받은 사람들이 부유해진 뒤 주님을 잊었던, 몰몬경에 나오는 번영의 주기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번영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희생의 법의 영을 유지하고, 설혹 우리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만큼 많지 않더라도, 가진 것에 대해 주님께 항상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경전의 언어들에 귀기울이십시오. "너희 영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옴나이서 1:26; 모사이야서 2:24 참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로마서 12:1) 주님께서는 친히 "희생 곧 나 주가 명한 모든 희생을 바쳐 이로써 [우리의] 언약을"(교리와 성약 97:8)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희생은 "육으로 난 인간"(모사이야서 3:19)과 그에 연관된 모든 경건치 못한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결하게 되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의 모습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4; 모세서 6:59~60 참조)

모든 일에서처럼, 우리 주 구세주께서는 희생에 관한 최상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을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온 시대를 아울러 유례없는 이 사건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미친 그 원대한 영향력에 대해 증거드립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이 확장되는 미래의 또 다른 생에서, 우리는 속속들이 미치는 속죄의 권세를 보다 충만히 이해하며 현재의 상태에서는 가능치 않은 방식으로, 구세주께 더욱 더 감사와 존경과 예배와 사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두려운 점은, 우리 가운데 희생의 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면, 간증은 약해질 것이며,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과는 달리 간증의 뿌리가 신앙의 토양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희생의 법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그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

1996년 8월 13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교회 교육 기구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형제를 용서함

디오사플로르 템블러

열한 살이었을 때, 나는 오빠와 다투었고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삼 년 동안, 그는 내게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매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의 노력을 무시했다.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기적이었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에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오빠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인내심을 보였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14살이고 최근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는 오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개하고 다시 오빠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밤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했다. 마침내 나는 오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성전에 가기 전에 오빠 방에 편지를 놓아 두었다.

한결 기분이 가벼워지는 듯 했다. 무거운 짐이 사라졌고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용서의 권세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

디오사플로르 템블러는 필리핀 두마구에테 지방부의 두마구에테 제2지부 회원이다.

삽화: 켈빈 멕클라인

까치밥 나무

"정원사님, 고마워요. 절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게 잘라 주셨군요."

휴 비 브라운 장로 (1883~1975)
십이사도 정원회

휴 비 브라운은 유타 그레인저에서 태어나 캐나다 앨버타에서 성장했다. 1961년에서 1970년까지 교회의 제9대 대관장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제1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커다란 사랑과 이해심을 지닌 위대한 연사이자 교사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알고 계실까에 대해 종종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종 그분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제 인생의 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 살던 시절, 저는 농장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농장의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밖에 나갔다가 까치밥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완전히 자라서 키가 6피트(2미터)도 넘었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꽃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 솔트레이크의 과일 농장에서 자란 저는 이 까치밥 나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정 가위를 가져다가 밑둥만 남겨 놓고는 가지를 모두 쳐냈습니다.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밑둥만 남은 이 나무 그루터기들 위에 마치 눈물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까치밥 나무들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단순한 편입니다.(사실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점입니다만) 저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우는 거지?" 나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자랐었는데요. 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과일 나무와 그늘 나무 만큼 자랐었다구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라 놓았어요. 자라야 할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했으니 이제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나를 얕잡아 볼 꺼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난 당신이 이 곳의 정원사라고 생각했는데요."

까치밥 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듯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까치밥 나무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난 이 곳의 정원사야. 난 네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단다. 난 네가 과일 나무나 그늘 나무가 되길 원하지 않아. 까치밥 나무이길 원한단다. 작은 나무야, 언젠가 네가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날, 넌 이렇게 말할꺼야. '정원사님, 고마워요. 절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게 잘라 주셨군요.' 라고 말이야"

세월이 흘러, 저는 영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한 기갑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영연방 캐나다 군의 영관급 장교였던 저는 제 직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장군이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치렀고, 서열상으로도 진급할 차례였습니다. 영국의 한 장군과 제 사이에 있던 한 사람이 사망했고 저는 터너 장군이 서명한 런던 발 전보를 받았습니다. 전보에는 "10시까지 내 사무실로 오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갔습니다. 절도있는 걸음으로 장군의 사무실로 들어가 절도있는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는 상관들이 보통으로 하는 경례인 "귀찮기 짝이 없군."하는 식의 경례를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게, 브라운. 미안하지만 자네를 진급 시킬 수 없네. 자넨 자격이 있네.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서열상으

휴 비 브라운이 하게 되어 있던 진급은 취소되었다.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이유를 묻는 휴 비 브라운은 자신의 목소리로, "난 이곳의 정원사란다." 라는 대답이 들려오는 듯한 경험을 한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로도 문제가 없어. 자넨 좋은 장교였네. 그렇지만 자넬 진급 시킬 순 없네. 캐나다로 돌아가 훈련 장교와 수송 장교가 되도록 하게." 10년 넘게 기도하고 소망해 온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다른 방으로 건너 갔습니다. 그 때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제 경력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력서 아래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 사람은 몰몬임"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임명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이다. 브라운." 저는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절도있는 경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120마일(190킬로미터)이나 떨어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고 영혼은 비통했습니다. 철로를 달리는 기차 바퀴 하나 하나가 "너는 패배자야"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막사에 도착했을 때, 원통함으로 가득 찬 저는 침대 위에 모자를 내던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는 하늘을 향해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모두 다 했다구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쓰라린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제 자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난 이곳의 정원사란다. 난 네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할 지 알고 있단다." 쓰라린 고통이 저의 영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저의 무례함과 불평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옆 막사로부터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몰몬 청년들이 매주 화요일 밤이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저도 보통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상호 향상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동안 들려온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내게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저는 겸손한 사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을 올려다 보며 말합니다. "정원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낮게 잘라 주셔서요. 절 너무 사랑하셔서 아프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당시에 장군이 되지 못했던 것이 다행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서부 전 지역을 총괄하는 장군이 되었다면 평생 동안 많은 월급과 살 집과 연금을 받았겠지만 아마도 제 여섯 딸들과 두 아들을 군대 막사에서 키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은 교회 밖에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 많은 것을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단히 많은 일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주님께서 제가 원했던 길을 가게 하셨더라면 이루어 냈을 것 보다는 훨씬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든 일들, 즉 실망과 비탄, 사별, 패배 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의 정원사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받으실 것입니다. □

뉴 이라, 1973년 1월호에 실린 기사

경전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킴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과 함께 다음 내용을 읽고 질문, 성구,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경험과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러분이 … 경전을 읽는다면 마음 속에 이해력과 따뜻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 요한 복음을 … 읽으십시오. …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께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고요한 확신과 함께 다가올 것이며, 그 확신은 그분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의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신세계의 성약인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그 기록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몰몬경 표제지)을 증거하기 위해 나온 책입니다."(대회 보고, 1966년 4월, 87쪽)

니파이이서 33:4

"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별하실 것을 내가 알며, 내가 기록한 바 나약한 것들을 저들에게 강하게 전하실 것을 내가 앎은 나의 말이 저들에게 선한 것을 권고함이며 저들의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며, 예수를 전하여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하며,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도록 권고함이라."

야곱서 4:6

"우리는 예언자께 구하며 … 이러한 증거를 가짐으로 하여 소망을 얻으며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무를 명하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며, 산이나 대양의 물을 명할 수 있게 되리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

"주께서 이 말일에 가져다주신 위대한 사업에 관하여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간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부지런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대의 예언자와 사도들이 기록했던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알기 위해 … 경전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쪽 참조)

힐라맨서 15:7~8

"레이맨인들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며 … 기록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곧 성스러운 경전을 믿게 되어 저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게 한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로 안내된 자들은 모두, 너희가 알려니와, 그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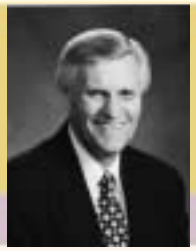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거룩한 경전에 대한 사랑의 불을 지피는 것은 아마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을 지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감독과 고문들이 필연적으로 그들을 떠나고 난 훨씬 이후에도 우리의 청소년들은 경전과 경전에 대한 이해를 지닐 수 있습니다."("Unto the Rising Generation", *엔사인* 1985년 4월호, 10쪽)

■ *경전 공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도록 부름 받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규칙적인 경전 공부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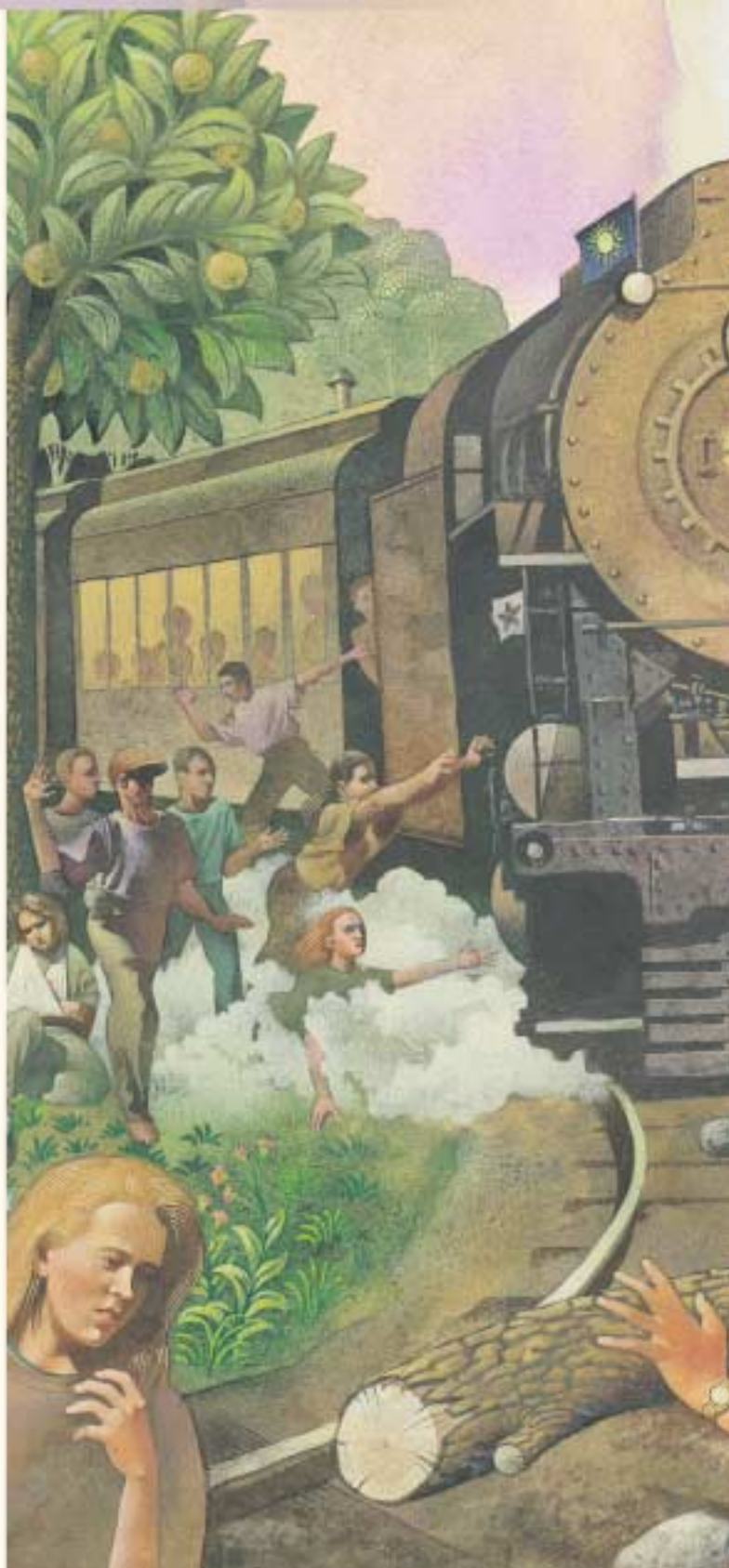
삽화: 켄드라 버트



기차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빛을 지니십시오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삽화: 리처드 헐



어린 시절, 저는 누이에게 지나치게 의지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식이 심했던 저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음식 접시가 제 앞에 오면 저는 누이에게 묻곤 했습니다. "콜린 누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콜린 누나가 알기에 그 음식이 제가 싫어하는 것이면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렌은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저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 그거 안 좋아해요."

만약 그 음식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면 누나는 "잠깐 기다려."라고 말한 뒤, 자기가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이 제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말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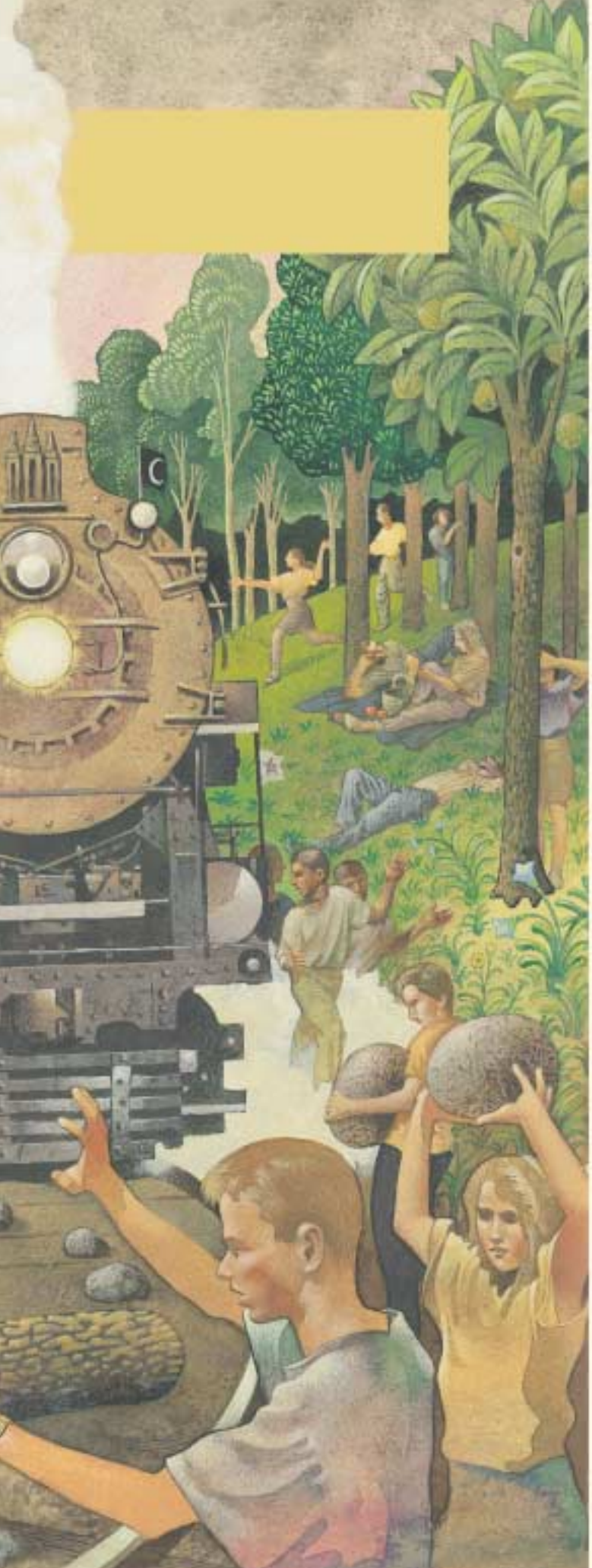
일단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누나가 말하고 나면 누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저는 절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고집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누나가 말했다는 이유 하나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밀쳐두던 일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좀더 진지한 주제와 연관지어 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간증의 열매를 만끽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간증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이있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하여 참되다는 것을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간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영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라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차는 조금씩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걸. 이 기차는 너무 답답해." 그리



고는 기차에서 뛰어 내려 숲속에 들어가 한참을 놉니다. 우리는 곧 그 일이 사탄이 외관상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큼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철로로 돌아오지만 기차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한 뒤, 숨을 헐떡이며 이마의 땀을 닦고는 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차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웃고 즐기는 몇몇 회원들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기차에서 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탈선시키려고 나뭇가지나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철길을 따라 달려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즐기진 않지만 그냥 기차에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앞서 가려고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주 기차를 탔다 내렸다 하는 행동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약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차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위험한 장소가 되고, 안개와 어둠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기차를 탈선시키려는 사람들은 마치 "연약한 팔을 펴서 미주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교리와 성약 121:33)려는 것과 같지만 그들은 종종 몇몇 사람들을 꾀어 기차에서 내리게 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이미 보았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태워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더 보고 경험해야 기차에 올라 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소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불을 다시 밝혀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는 일에 애쓰지 말고 현재 순종하는 일에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훨씬 안전하고 무한히 행복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도전들에 대한 해결책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

1992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역경에 맞서는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의 어두운 나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 안심시켜 주십니다.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살아가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삶이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역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역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도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계획에 있는 원리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역경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견해

이 지상은 우리가 자신의 합당성을 증명하고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5)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시험을 받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이 …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교리와 성약 136:31)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니파이이서 2:11)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시험의 과정의 일부로서 이러한 상대되는 것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니파이이서 2:27; 교리와 성약 29:35 참조)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상대되는 것과 자유의지의 원리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생에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경험들 속에서 고군 분투하고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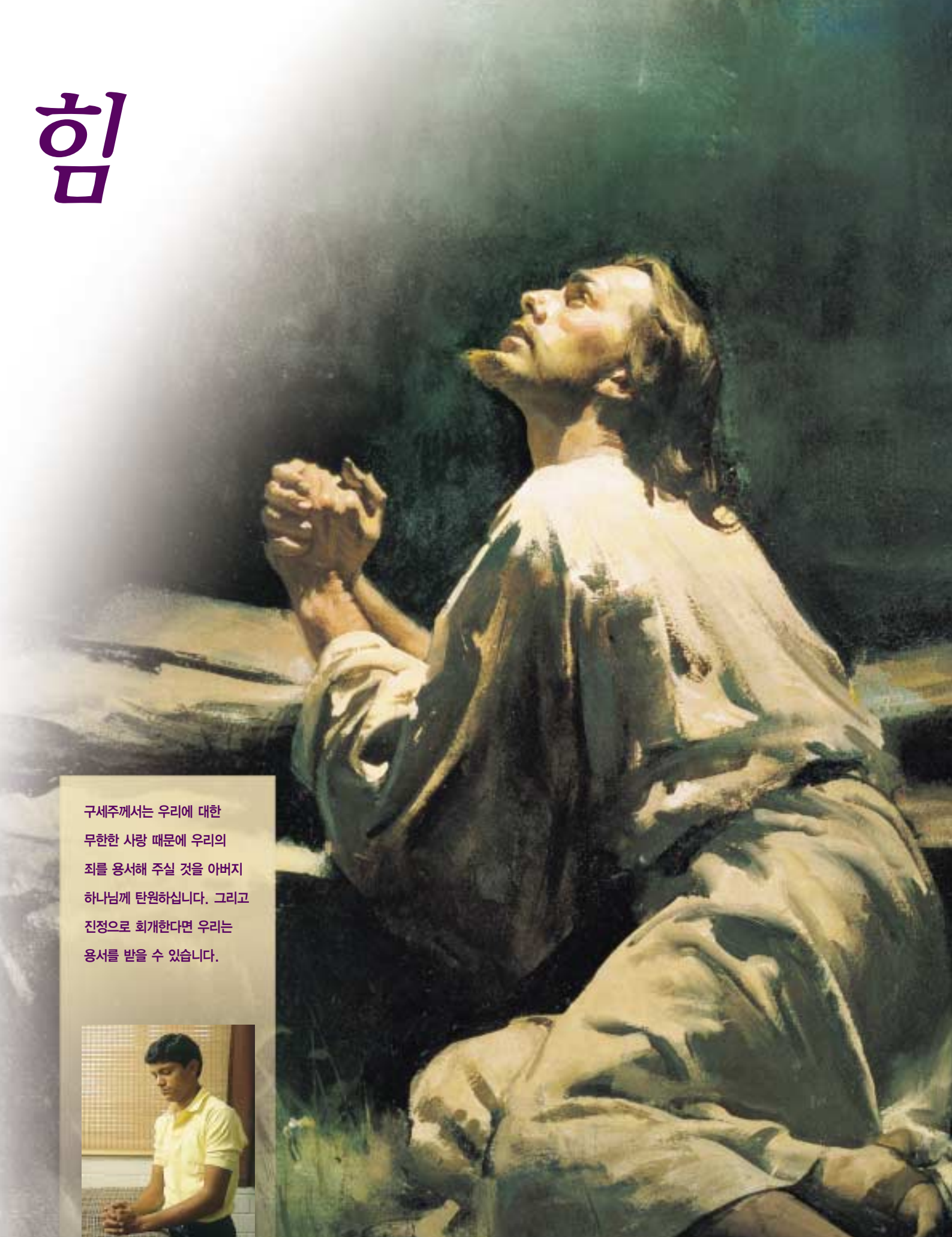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분투도 있지만 이미 내린 결정들의 결과로 발생하는 분투도 있습니다. 역경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내렸으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역경들이 때때로 고통을 야기하며 문제와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역경들은 유혹, 시련, 환란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맞아 분투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정결하게 되는 신성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면전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준비되는 데에는 편하거나 쉬운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경에 맞서 분투하는 결과로 우리의 성품은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고통, 고난, 그리고 슬픔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떠한 고통도, 그것을 이겨 나가겠다는 굳은 각오와 인내로써 맞이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ited by Edward L. Kimball [1982], 168쪽)

오른쪽: 헤리 엔더슨, *내 원래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래로 하옵소서*의 일부,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의 허락을 받아 게재; 오른쪽 삽입 사진 삽화: 마티 마요

힘



구세주께서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가 리버티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위로와 권고를 주시면서, 짐을 견디어 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한 결과와 축복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122:7)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평안할 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삶의 역경에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짊어지도록 부름 받은 짐에 의해 얻어 맞고 패배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움과 패배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주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쉬운 길을 찾으려 하고, 실망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고, 역경에 부딪쳤을 때 좌절하기까지 하는 것은 자연스런 경향입니다.

당시 십이사도 보조였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어려움에서 보이는 반응의 차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결의의 촛불을 끄는 시련의 바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지닌 신앙의 불길을 더욱 치솟아오르게 할 뿐입니다."("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0쪽)

만일 우리가 계시된 영원한 원리들을 따른다면, 역경에 맞서는 시기 동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생활에서 우리의 짐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장애를 극복하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힘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구세주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권고를 따라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구세주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잘 알고 계시며, 필요한 시기에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눈은 너희를 바라보고 있도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38:7)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때때로 직접, 그분의 종을 통해서 자주,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The Lord's Way* [1991], 14쪽)

구세주께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주가 만물을 다 아시매 주께서 아시지 못할 일이 없음이라."(니파이이서 9:20)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니파이삼서 13:8 참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이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영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도 들여다 보십니다.(앨마서 18:32 참조)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에스겔 11:5)

그분은 우리가 겪을 유혹도 알고 계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경전은 "저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다]"(교리와 성약 20:22)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를 구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브리서 2:18)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베드로후서 2:9)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아[십니다]"(교리와 성약 62:1)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음과 같은 위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은혜는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27)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유혹과 약점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생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라, 나의 눈은 저희 행위를 낱낱이 보아 알고 있나니"(교리와 성약 121:24; 또한 니파이이서 27:27 참조)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요한계시록 2: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88:63~64)

그분께서는 역경과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야곱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두터운 신앙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야곱서 3:1)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영과 위안, 그리고 우리가 맞게 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역경을 맞았을 때 힘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는 위안과 권고의 말씀에 귀기울여 봅시다. "어린 아이들아,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교리와 성약 50:41~42)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의 어두운 나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 안심시켜 주십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어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50:44)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고, 격려 가득한 권고를 주십니다. "너희는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대하여 너희 변호인이 됨이니"(교리와 성약 29:5, 또한 교리와 성약 45:3, 62:1, 110:4 참조)

우리의 역경이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분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도 자주 실패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이 있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와 내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

구세주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을 유혹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를 구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림: 캘 하인리히 블로흐, *사탄이 물러가라*, 덴마크 헬러로드의 프레드릭스보그 소재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하게 회개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내가 또한 그를 용서하리로다.

"참으로 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저들의 허물을 사하리니"(모사이야서 26:29~30)

우리는 옛날에 이노스가 했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이노스 1:4)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죄 사유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강도의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죄는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인 감독에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 및 죄 사유함의 결과는 평화, 희망, 기쁨,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모사이야서 4:3 참조) 앨마는 이러한 말로 그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앨마서 36:19~20)

몰몬은 우리 죄에 대해 죄 사유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라.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부지런히 기도할진대 이 온전하신 사랑은 마지막 날 … 때까지 깃들어 있으리라."(모로나이서 8:26)

변화를 가져오는 힘

역경에 맞서는 동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권고하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의 특정한 원리들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신뢰에는 겸손, 그분과 그분께서 계시하여 주신 권고에 의지하겠다는 열의와 순종의 영이 포함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교리와 성약 112:10) 주시리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길이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공할

경전은 주님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약속들을 상고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릅시다. 주님의 권고를 따를 때 커다란 힘이 찾아 옵니다. 야곱은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야곱서 4:10)라고 말했습니다. 앨마는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실]"(앨마서 37:37)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권고를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대답을 경전에서 찾으려 할 때 권고를 주십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

주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통해 권고를 주십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또한 영감 받은 권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역경에 맞서는 동안,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보고 사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고를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권고나, 그분의 종들의 권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고를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앙갚음을 자초"(교리와 성약 3:4)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상고합시다. 경전은 그분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약속들을 상고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림하이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힘있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며 주를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주를 섬길진대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주시리로다."(모사이야서 7:33)

구세주께서는 역경에 맞서는 동안 우리를 강화시키는 다른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68:6)

"너희가 겸손하고 충실하며 나의 이름을 불러 구하면, 보라.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곧 이번 한번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내 주리라."(교리와 성약 104:82~83)

주님께서는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원리들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한다면, 힘과 마음의 평화를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집시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또 맨 처음 해야 할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너의 연약함을 알았으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이더서 12:37; 또한 교리와 성약 135:5 참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에서 주님은 이렇게 정하셨습니다."이로써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 알맞는 행위를 하게 하며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78)

우리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 책임을 돌릴 때, 우리는 결코 변화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삶에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 실패감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기만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약하게 만들며 고통과 스트레스를 연장시킬 뿐입니다.

신앙을 키웁시다. 신앙은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힘을 줍니다.(니파이이서 1:10 참조) 충분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결점들을 변화시키거나 낫게 할 수 없습니다.(니파이삼서 17:8 참조) 충분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약점들을 결코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10:47 참조)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얻을 것이요"(몰몬서 9:21)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라도, 주님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니파이는 이러한 말로 주님의 무한한 권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간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어 일할 때 주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으심을 어찌하여 잊었느냐? 이제 우리는 주께 충실하자."(니파이일서 7:12)

오 에루살렘, 그레그 케이 올슨, THE ARTIST AND MILL POND PRESS, INC.의 허락을 받아 게재.

그분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니파이이서 27:23 참조) 모로나이는 이러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이라."(이더서 12:12) 주님께서는 신앙에 관해 "신앙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지니"(교리와 성약 8:10)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의로운 소망을 키웁시다.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는 마음의 소망에서 옵니다. 회개하겠다는 깊고 신성한 소망이 없다면, 변화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앨마는 이러한 강력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 인간의 원대로 … 허락하심을 내가 앎이라."(앨마서 29:4)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킵시다.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약해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심은 우리가 소망하는 올바른 변화를 일으킬 힘과 권세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결심은 그 옛날의 니파이의 결심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성공하겠다는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또한 니파이일서 3:15 참조)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교리와 성약 88:76)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위대한 권세는 우리가 역경과 영적인 복지에 관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오게 됩니다.

금식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교리와 성약 4:5) 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순수한 생각을 갖기 위해, 영적인 것들을 상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동안 경전 공부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구하는 동안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행위에서 비롯되는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앨마서 58:10; 야곱서 3:1 참조) 우리는 유혹에 대항하는 힘을 얻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31:12, 또한 교리와 성약 61:39, 10:5 참조)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한 회개, 기도, 그리고 금식의 결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기쁘게 맛볼 수 있으며(교리와 성약 59:13 참조) 성결케 되고(힐라맨서 3:35 참조) 영생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옴나이서 1:26 참조)

금식과 기도는 생각과 느낌, 격정, 그리고 탐욕을 제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육체를 영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습니다. 한층 커진 영성과 힘, 권세, 겸손과 간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고 화평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동반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우리 영혼에서 사라지며, 유혹에 대항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힘이 증가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신앙과 소망이 커지고, 의심과 낙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신권 축복을 기억합시다. 고투하는 동안, 우리는 신권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효과가 있으려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축복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기꺼이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권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은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축복을 주는 신권 소유자가 말하는 내용에 관하여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우리는 자신이 받은 권고에 대해 완전한 신앙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보다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상고합시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삶에서 분투하는 동안에 보다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원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1899~1994)은 구세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적이 여러분에 대항하여 사용할 모든 전략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 그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장점 또한 알고 계십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세심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에 의해서, 자신이 지닌 장점들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14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할 때 힘을 주며 슬플 때 위안을 주고 영적으로 약할 때 우리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축복사의 축복”, *성도의 벗,* 1983년 6월호, 31쪽)

마지막 권고

만일 우리의 역경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앨마의 열정에 찬 다음의 호소를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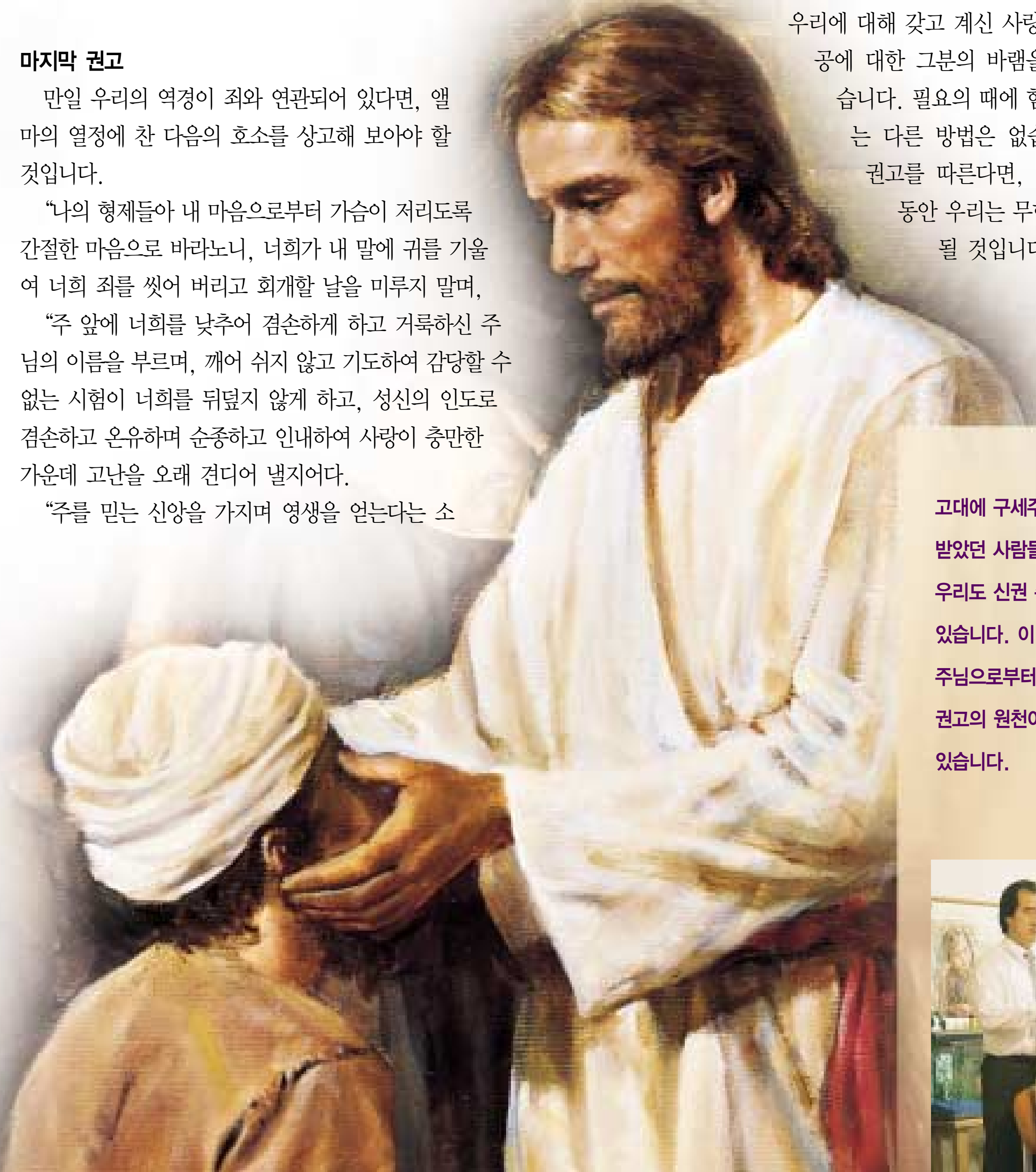
“나의 형제들아 내 마음으로부터 가슴이 저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노니,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 죄를 씻어 버리고 회개할 날을 미루지 말며,

“주 앞에 너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너희를 뒤덮지 않게 하고, 성신의 인도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고 인내하여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고난을 오래 견디어 낼지어다.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지며 영생을 얻는다는 소망을 가지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앨마서 13:27~29)

구세주의 다음 말씀은 죄에서 비롯되지 않은 역경에 관해 적절한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경전에 있는 권고와 총관리 역원들이 주는 모든 권고는 희망의 말씀들입니다. 그 권고들은 구세주께서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과, 우리의 성공에 대한 그분의 바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요의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른다면, 역경에 맞서는 동안 우리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고대에 구세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권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권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델 파슨, *맹인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일부; 사진 삽화: 웰든 시 앤더슨

"영광을 받기 위한 준비"

칠십인 정원회의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역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경험합니다."(이번 호, 28쪽)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한]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니"(교리와 성약 136:31)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위대한 축복에 대해 준비될 수 없습니다. 켄드릭 장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경을 맞아 분투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정결하게 되는 신성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면전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준비되는 데에는 편하거나 쉬운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각 개인이 어떻게 시련을 견디고 극복하여 그 결과 더욱 강해지고 정화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힘

마리벨 헤레라 차콘

몇 년 전, 겨우 일곱 살이던 딸 아이의 목 앞 부분에 커다란 혹이 부풀어 올랐다. 제넷을 치료하던 소아과 의사는 딸아이에게 갑상선종이 있고 그 종기가 안팎으로 자라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몇 가지 검사를 받게 했고, 아마도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제넷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곧 바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제넷은 신앙이 매우 강했고 종종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전 하나님이 절 낫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수술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난 후, 아이를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세의 소아 전문 병원으로 데려갈 시간이 되었다. 출발하기 전에 남편과 나의 두 남동생이 딸아이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축복을 받는 동안 제넷은 자신의 몸 안에서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목을 쓰다듬는 것을 느꼈다. 제넷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전 제가 괜찮을 거란 걸 알아요.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의사들이 아이를 검진한 후,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림: 그랜트 롬니 클로슨, *재림*; 삽화: 브라이언 콜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제넷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아주 좋아요." 그 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과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제넷을 낫게 할 뜻을 갖고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마침내 의사가 딸아이를 들어오게 했고 검진을 시작했다. 그는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요. 동료 의사들을 불러야 겠어요."

그는 진료실을 나갔다가 다섯 명의 소아과 의사들과 함께 돌아왔다. 나는 너무나 초조해서 덜덜 떨었다. 그러나 아이는 명랑하고 침착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검진한 후,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건강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이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딸은 지금 열네 살이다. 그 애는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내 자신의 간증도 그 아이의 모범으로 인해 더 강해졌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 의사들은 이 일에 대해 의아해 했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병고침의 축복에 감사드린다.

마리벨 헤레라 차콘은 코스타리카 나랑호 지방부 산 카를로스 지부의 회원이다.

조정 팀에서 배운 교훈

움베르토 에티 카와이

"자아, 우리 조정 팀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가 이미 한물 갔다고 생각하나?" 선배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신입생들에게 거창한 질문을 던졌다.

"어림없는 소리다! 이것은 전통이다."

나는 그 곳에 모여있는 상파울루 대학교의 의대 신입생 중 한 명이었다. 상파울루 대학교는 조정 경기 챔피언으로 오랜 명성을 누려왔다. 선배 선수들은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우리 교수님께 잠깐 시간을 요청했다. 졸업한 선수들의 자리를 메울 신입 선수들을 선발하려는 것이었다.

선배가 목청껏 열정적으로 외친 덕택에 우리 중에서 약 30명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조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몸매는 엉망이었다. 코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우리의 빈약한 몸매에 대해 주저없이 혐오감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의대생들의 근육이 오히려 형편없다면서 우리들을 수시로 놀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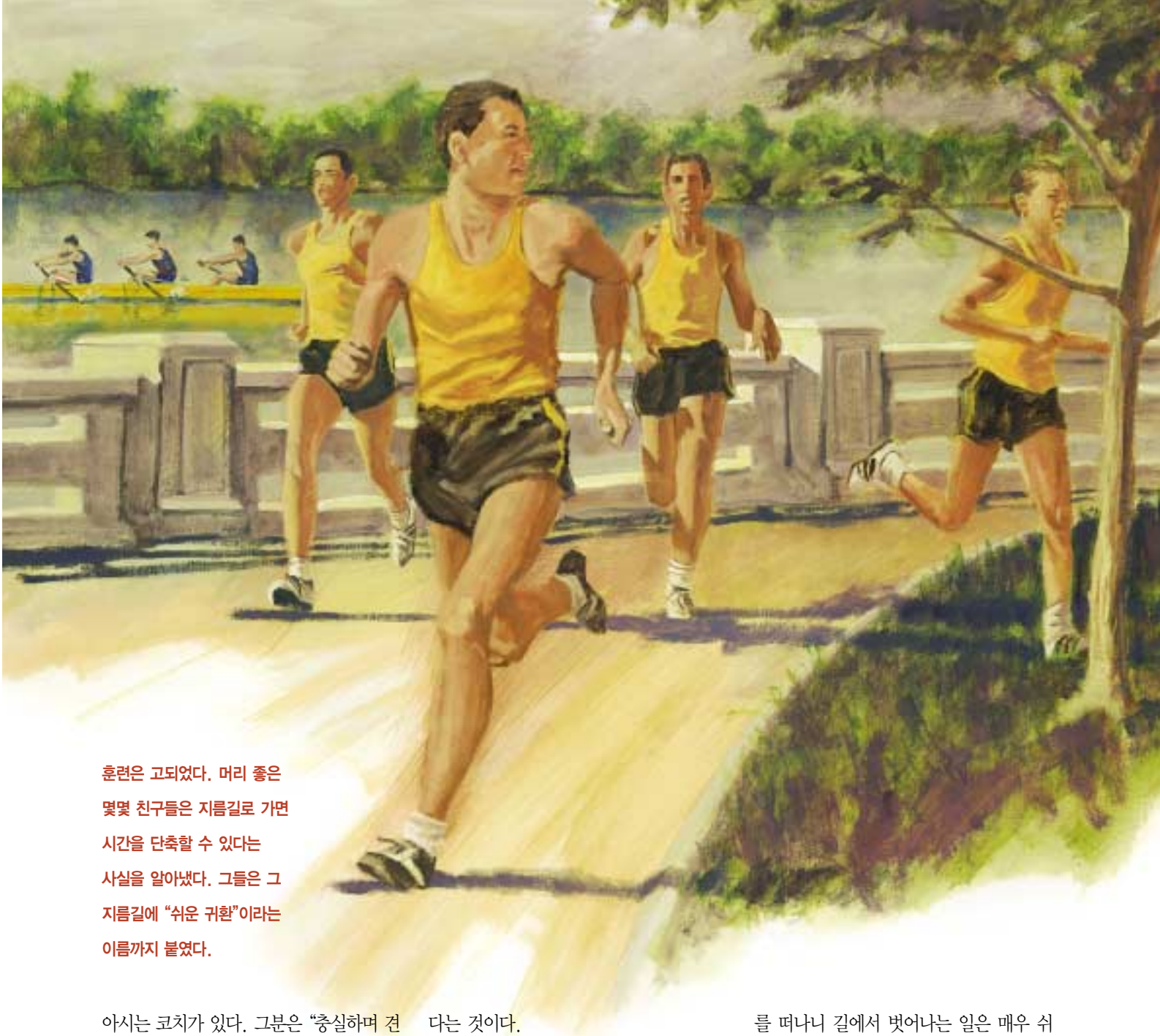
일주일에 여섯 번, 새벽 다섯 시마다 열리는 훈련은 너무나 고되었다. 훈련지로 떠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우리는 자명종이 4시 15분에 울리도록 맞춰 놓아야 했다. 훈련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이내 아침 훈련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남은 우리들은 코치가 모든 노력을 팀의 주전 선수들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신입생들은 캠퍼스 주위를 다섯 바퀴 돌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캠퍼스는 매우 넓어서,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야 했는데 우리의 체력 조건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달리기를 마친 후 우리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으며 그런 우리에게 코치는 별 말 않고 샤워를 하라고 지시했다.

똑같은 훈련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오래지 않아 머리 좋은 몇몇 친구들은 지름길로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들은 캠퍼스 한 바퀴를 완주하는 대신 우회하여 숲을 가로질러 갔다.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샤워를 하면서, 스스로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름길에 "쉬운 귀환"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시간이 흘러, 코치는 공식 팀에 속하게 될 사람을 호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놀랍게도, 쉬운 귀환을 택했던 사람은 아무도 선수로 뽑히지 못했다. 코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에서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 그 과정은 종종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훈련은 고되었다. 머리 좋은 몇몇 친구들은 지름길로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그 지름길에 "쉬운 귀환"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아시는 코치가 있다. 그분은 "충실하며 견디는 자는 세상을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63:47)라고 약속하셨다. 규칙을 어기는 일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조정 팀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할 때면 항상 감사하게 된다. 나는 그 때 우리 팀이 획득했던 금메달을 아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쉬운 귀환"은 결코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움베르토 에티 카와이는 브라질 상파울루 이피랑하 스테이크 빌라 마리나 와드의 회원이다.

머나먼 여정

매비스 그레이스 존스

나는 1965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와 다른 압박들로 인해 마침내 저활동이 되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간들이었다. 교회를 떠나니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쉬운 듯 했다. 별 문제 될 것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며 지혜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믿게 되었다. 완전히 거부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외로웠다.

회원들이 이따금씩 나를 방문했으나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세드신 자매

선교사 두 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나는 그 분들께 못되게 굴어서 다시는 방문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구로서 다가왔고 설교를 하거나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집 정원 일을 도와주고 오래 된 장롱 칠을 벗겨 수리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번 다시 왔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게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들이 복음대로 살면서 느끼는 분명한 기쁨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점차 그들을 통해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내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너무나 빨리 그들의 선교 사업 기간은 끝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을 방문했다. 나는 교회에 대한 반항심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행 기간 동안 교회의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 그 두 친구 앞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며 "구제 불능"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곧 내가 "구제 불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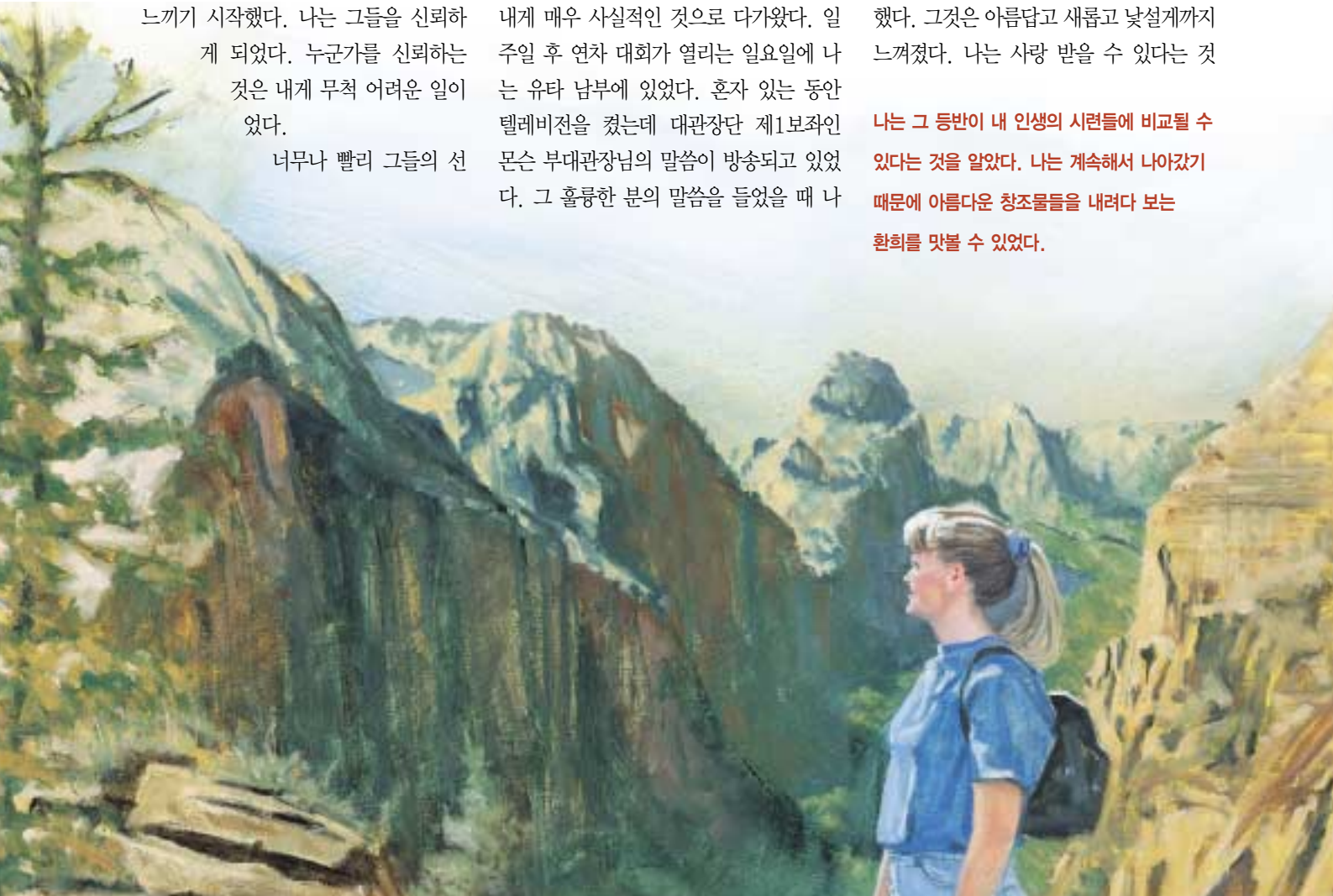
부활절 전 토요일에 우리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있는 기념 공원을 방문했고 나는 구세주에 관한 그림과 예술 작품들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갑자기 속죄가 내게 매우 사실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일주일 후 연차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나는 유타 남부에 있었다. 혼자 있는 동안 텔레비전을 켰는데 대관장단 제1보좌인 몬슨 부대관장님의 말씀이 방송되고 있었다. 그 훌륭한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내가 여행 중이던 국립 공원의 전망대 하나로 올라갔다.

등반하는 동안 나는 내 삶을 되돌아 보기 위해 노력했다. 군데군데 매우 힘겹고 고된 그 등반이 내 인생의 시련들에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등반의 끝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내려다 보는 환희를 맛볼 수 있었다.

반항심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적대감이 녹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름답고 새롭고 낯설게까지 느껴졌다. 나는 사랑 받을 수 있다는 것

나는 그 등반이 내 인생의 시련들에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내려다 보는 환희를 맛볼 수 있었다.



또한 알게 되었다.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선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면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인도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참된 회개가 하루 밤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수 개월이 걸린 후에야 나는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나는 다시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용기를 내서 실제로 교회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다.

구세주의 속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벅차 오른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두 자매 선교사가 내 삶으로 찾아와 내게 모범과 사랑을 나누어 준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마침내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참석했을 때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나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고,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머나먼 여정 끝에 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매비스 그레이스 존스는 영국 브리스톨 스테이크 브리스톨 제1와드 회원이다.

"그들을 찾았어요!"

매들린 커츠

필리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남편 로버트와 나는 카가얀 데 오로 동 스테이크에 가족 역사 센터를 세우고 얼마간의 훈련 모임을 갖기 위해 카가얀 데 오로까지 여행했다. 우리는 또한 말라이발라이 지방부로부터 회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갔다. 어떤 지역은 필리핀인이 아니면 출입이 금지되었는데 말라이발라이가 그런 지역 중 하나였다. 말라이발라이 지방부에는 거의 일 년 동안 가족 역사 센터 장비가 묵혀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뿐이었다.

우리는 말라이발라이 지방부의 린드로 미올레 지방부장에게 연락하여 카가얀 데 오로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올 수 있는 회원이 있는지 물었다. 미올레 지방부장은 그들이 비록 산길을 두 시간 이상 운전해 와야 하긴 하지만 기꺼이 오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훈련 날짜와 장소와 모임 시간을 적은 편지를 미올레 지방부장에게 보냈다.

세미나가 열리는 날 내가 맡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펼쳐서는 남편에게 읽어 보라고 했다. 그들의 대화가 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훈련 모임이 끝나자, 남편은 내게 그가 미올레 지방부장이며 그의 지방부에서 온 10명의 회원들이 그와 함께 카가얀 데 오로 스테이크 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 미올레 부장은 훈련에 대해 설명한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 주었다. 남편은 편지에 장소를 쓸 때 동 스테이크 센터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몹시 낙담했다. 이 충실한 성도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도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낙심한 우리는 카가얀 데 오로 스테이크 센터로 가서 훈련 모임을 여는 데 기쁘게 동의했다.

성도들은 우리가 도착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개회 기도와 찬송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훈련으로 들어갔다.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다가 나는 판독기 안에 필름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설명할 때 쓰려고 가져온 필름 대신에, 판독기 안에 있던 그 필름을 사용했다. 남편이 필름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찾으려면 필름의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 때 누군가 낮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미올레 부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내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의 화면에 있는 이름들을 가리켰다. 그는 그 이름들, 바로 그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찾기 위해 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들이 바로 이 곳에 있었다. 원래 보려고 했던 필름이 아닌 필름에, 원래 오려고 했던 건물이 아닌 그 건물에서 말이다.

그날 우리는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앨마서 37:6)라는 말에 대해 생각했다. □

매들린 커츠는 캐나다 포트 맥클로이드 앨버타 스테이크의 포트 맥클로이드 2와드 회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는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육신을 얻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다. 지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참조)라고 말했다. 아마도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이 정의를 명료하게 해 줄 것이다.

몇 년 전, 한 젊은 어머니가 임신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다. 아기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그녀는 남편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남편은 그가 자신의 소망보다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다.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젊은 아버지는 아기가 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확신을 받았다.

축복이 주어졌다. 그러나 임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아기는 예정일보다 삼 개월 일찍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난 첫날 밤에, 의료진들은 아기의 덜 자란 폐로부터 혈관으로 산소를 보내기 위한 시도를 반복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젊은 아버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전에 받았던 영적인 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다시 기도를 드렸고 또 다시, 아기가 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의사들이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말했을 때조차 이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이 내게 말해 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주님을 신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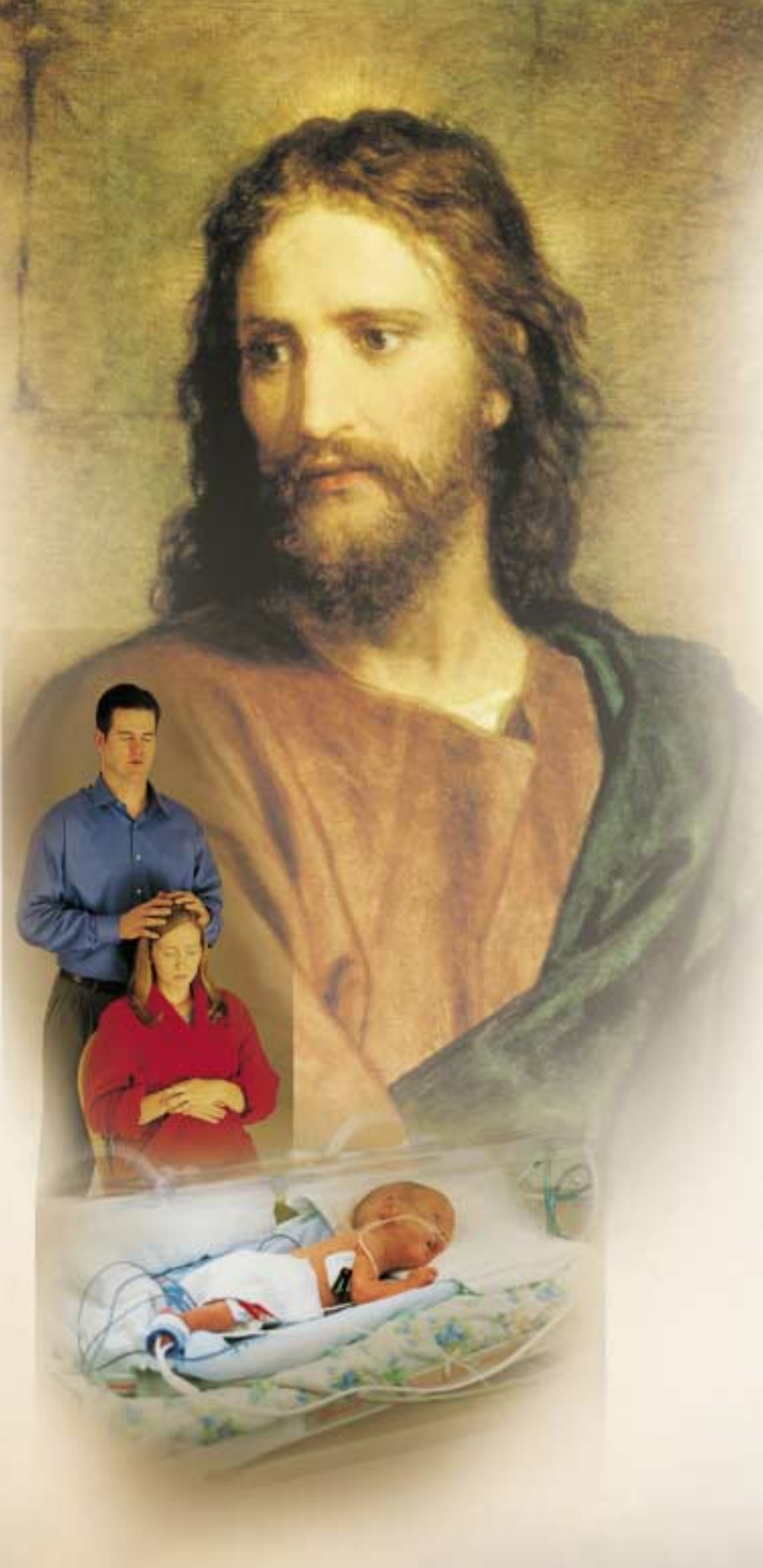
잠시 후 의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이 방법이 성공했을 때 이 젊은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다.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진들은 아기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해 종종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한 열두 살의 소년이며 최근 집사에 성임되었다.

이 젊은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들이 건강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는 성스러운 확신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미래를 들여다보고 열두 살 된 건강한 아들이 성찬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더라면 그것은 확실한 지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영이 자신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증거로 충분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확신에 기초해 행동할 때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강해진다. 그러고 나면 훨씬 더 큰 확신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에 대한 더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야곱은 그와, 그보다 앞서 살았던 다른 예언자들이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을 지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무를 명하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며, 산이나 대양의 물을 명할 수 있게 되"(야곱서 4:6)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예언자나 교회 지도자 혹은 부모

그리스도와 젊은 관리 그림의 일부, 하인리히 호프만;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를 통해 주님의 계명이나 권고를 받을 때, 우리는 이 가르침이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간증을 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도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명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나,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른다.

"네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느냐?

"십일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줄 것이라 믿으며, 너를 성전으로 데려 갈 수 있는 사람하고만 데이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느냐?"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우리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가일 것이다.

"너는 주님께 너의 죄에 대한 용서와, 마음의 변화를 간구할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느냐?

"너는 계명을 지키고 내가 요구한 길을 걸을 만한 충분한 신앙이 있느냐?" □

한 걸음 내딛으며

휠체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데이비드 이브스는 자신의 꿈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진해 나갔다 — 그 꿈에는 선교 사업에 대한 꿈도 들어 있었다.

제인 포스그렌

남부 유타에서 친구들과 함께 레저용 자동차를 타고 가던 1997년 9월 20일, 데이비드 이브스는 인생이 아주 급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충돌했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허공에 붕 떠서 날아갔다가 눈을 떠 보니 고통이 극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이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다리에 느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데이비드는 비행기로 솔트레이크시티의 병원으로 수송되었으며 여덟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그 다음 3개월 동안 그는 생존을 위한 고투를 벌였다.

유타 라 버킨 스테이크의 라 버킨 제2와드 회원인 데이비드는 한때 인기있는 운동 선수였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할 수도 없었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체중은 두 달 사이에 78킬로그램에서 45킬로그램으로 줄었다.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고 견디기가 힘들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진통제를 맞고 싶지 않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몰몬경을 읽어달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책을 읽어 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 책의 영은 제게 커다란 평화를 주었으며 저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어머니 질 이브스는 아들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영감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으며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의사는 데이비드의

식도에 난 구멍을 치료했다. 2주 후에 데이비드는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데이비드의 아버지, 레이몬드는 아들에게 목표를 성취하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그가 퇴원하고 난 후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다시 학교에 간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한다. "몸에 깁스를 하고 목에는 버팀대를 댔습니다. 저는 회복되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곧 학교에 있는 다른 800명의 학생들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첫주를 보낸 후, 저는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뿐이었죠."

몇 달 후 형은 데이비드에게 학생회장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했으며, 그는 이제 인기있는 운동 선수에서 학생 지도자로 변신했다. "그 해는 참으로 멋진 해였습니다. 저의 선교 사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데이비드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물리 치료를 열심히 받았다. 몇몇 친구들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태인데 굳이 선교사로 봉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가 봉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곧 혼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며 운전도 하고 휠체어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의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버팀대를 착용하고, 어깨를 움직여 몸을 앞으

사진 촬영: 필자, 제공: 이브스 가족

장기간의 입원 후(왼쪽 페이지의 본문 가운데 사진), 데이비드 이브스는 그의 가장 큰 후원자인 어머니(오른쪽)와 아버지(위)로부터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 이브스 장로는 직업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훈련생들을 지도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다.

전임 선교 사업의 대안

신체상의 이유로 인해 전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 감독 또는 지부장과 이야기하십시오.

■ 감독 또는 지부장은, 여러분이 봉사 선교사로 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여러분의 특별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가족 역사 센터, 취업 센터, 서비스 센터, 또는 종교 교육원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역 회원을 돕는 지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학교 공부를 지도하거나, 읽기를 가르치도록 지명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역사회 봉사 단체에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감독이나 지부장은 여러분 및 여러분의 부모와 상담을 한 후에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할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스테이크장이나 지방부장은 여러분의 부름과 해임을 담당하며,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의 규칙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은 신권 지도자와 정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과 여러분의 일을 감독하는 분도 서로 정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 가능한 곳에서는 전임 선교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

로 밀어 내면서 목발을 짚고 걷는 방법을 배웠다. 균형 감각이나 서 있는 땅을 지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성취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데이비드는 열아홉 살이 되어 선교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 날을 학수 고대했다. 그의 의사는 그가 도움없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소견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부름장 대신, 데이비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빼앗긴 듯 했습니다."라고 데이비드는 말한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 본부에서 가졌던 접견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업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일주일 후에 그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면서 세인트 조지에 있는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데이비드는 그런 부름을 받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명한 일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의 용기", *어린이 노래책*, 64~65)라는 초등회 노래의 가사를 생각했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교회 소유의 중고품 할인점이자 직업 훈련 시설인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직업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지금 뒤돌아 볼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데이비드는 말한다.

축복을 받은 것은 데이비드뿐이 아니었

다. 그의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는 데저렛 인터스트리의 자급자족 프로그램과 선교사 프로그램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250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일진이 좋지 않을 때면 우리는 이브스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도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긍정적인지를 보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라고 훈련생인 데비 켈리는 말한다.

선교사로서, 이브스 장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며 오전 시간을 보낸다.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편모 브랜디는 "그가 아니었으면 수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개인 지도는 교육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리타 로버트라는 또다른 훈련생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쳤다. "그는 제가 복음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두 번이나 제가 이사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예요."라고 리타는 말한다.

개인 지도원으로 일하는 것 이외에도, 데이비드는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 열리는 많은 영적 모임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었다.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 또다른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는 스코트 자매는 말한다. "이브스 장로가 영적 말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모였는데 이브스 장로만 없었죠. 잠시 후 그가 버팀대를 대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역경을 극복하고, 어떤 목표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노력한다고 말했을 때 교실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브스 장로는 전임 선교사들과 일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브스 장로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데이비드는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 봉사하는 일을 좋아했으나 선교사로서의 그의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녁에는 전임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복음 토론을 가르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러 사람이 개종했으며 한 젊은 여성은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제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만한 신앙이 있다면, 제게는 그렇게 할 방법을 찾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이브스 장로는 회상한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1일에, 이브스 장로는 침례탕에 샤워 의자를 놓고 앉아서, 침례 기도를 드리고 로빈 라스무센을 물 속에 잠기게 했다. 누구도 그날 그곳에 임재했던 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데이비드는 어느 곳에 있든 희망과 평화의 느낌을 가져온다. 또한 그의 유머 감각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 준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농담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더욱 편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이 제가 복음과 많은 축복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휠체어에 관한 모든 것을 잊고 저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이브스 장로는 축복을 헤아리는 일에 전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저렛 인더스트리의 일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제가 과연 그들처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복음도 있고, 또 선교 사업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현재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와 버팀대를 대고 걷는 것을 연습 중이다. "다시 걷게 될 날에 대비해서 다리 버팀대를 대고 다리 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간증을 전할 때와 똑같은 확신으로 말한다.

"저는 교리와 성약 121편 7절과 8절을 좋아합니다. '나의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저는 요셉 스미스가 회복의 예언자였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지날 때, 우리는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런 것을 알 때, 다른 모든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성령과의 교통", 2쪽: 계시와 영감을 받는 것에 관한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권고를 주제로 토론한다. 이러한 권고를 따름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 "희생의 법", 10쪽: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주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가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는 희생을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기차 안에 머무십시오", 26쪽: 글렌 엘 페이스 장로가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호소"를 토론한다. 이 권고를 듣고 여러분은 자신의 방향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는가?

■ "나와 같은 자라야", 친 16쪽: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우리는 그분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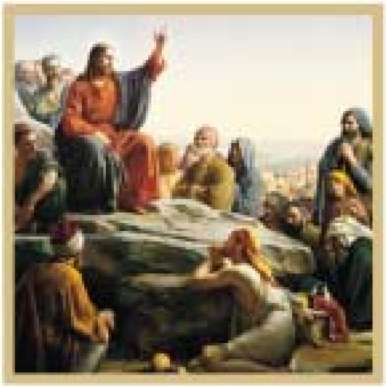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이번 호의 주제들

가르침 ····· 48
가정 복음 교육 ····· 7
가정의 밤 ····· 48
가족 관계 ····· 21
가족 역사 ····· 36
간증 ····· 25
겐디어 냄 ····· 36
경건 ····· 친2
경전 공부 ····· 25
계시 ····· 2, 26, 친4
고결성 ····· 36
방문 교육 ····· 25
병고침 ····· 36, 42
선교 사업 ····· 44
성신 ····· 2, 친4
성전 및 성전 사업 ····· 친14
순결 ····· 친14
순종 ····· 22, 26
신권 ····· 36
신앙 ····· 10, 28, 36, 42
신약 성서 이야기 ····· 친7, 친8, 친10
신체 장애 ····· 44
역경 ····· 10, 22, 28, 36
예수 그리스도 ····· 10, 22, 25, 28, 42, 친7, 친8, 친10, 친16
예언자 ····· 8
용서 ····· 21, 친16
전세계적인 교회 ····· 친12
초등회 ····· 친14
활동 촉진 ····· 36, 친10
회개 ····· 28, 친8
희생 ····· 10

청녀에게 보내는 권유

2001년 3월에 개최된 청녀 대회에서,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는 각 청녀에게 다른 청녀 한 명이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화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한 경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 번호, 스테이크와 와드(또는 지방부와 지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n Invitation to Young Women, *Liahona*, Floor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언자와 사도께서 주신 말씀

경 건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몇 년 전, 저는 대관장님을 모시고 여러 지구 대회에 두루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간격을 두고 열렸던 매우 대조적인 두 대회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번째 지구 대회는 넓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연단에 앉은 우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은 비스듬히 앉아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우리는 대회 장소가 넓은 탓에 경건성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회원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또 한번 지구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대회 장소 역시 먼저 번의 대회장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회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회중석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일반 총회 동안 사람들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경청하였습니다. 청중들은 어느 연사에게나 큰 관심과 존경심을 보였으며, 특히 예언자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대회를 위해 회원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는 간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역 신권 소유자들을 통해, 그들의 가족과 가정 복음 대상 가족들에게 이번 지구 대회에서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도록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 대해 갖고 있는 회원들의 경외심이 경건한 행동의 토대였다고 그 신권 지도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경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이며 매우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느껴지는 그 무엇입니다. □

199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산상수훈, 덴마크 힐러로드의 프레드릭스보그 소재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사진 삽화: 데릭 이스라엘슨

마음 속의 속

윌라드 로산더의 이야기를 앨리사 맥브라이드가 전함
삽화: 마크 로비슨

1878년,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미국 콜로라도 주 남부 지역에 정착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1900년대 초에, 아빠는 가족을 이끌고 그 외딴 지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농장은 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땅을 갈기 전에, 우리는 돌을 치워야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외바퀴 손수레로 작은 돌들을 실어다 버렸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돌을 다 치우고 큰 바위를 치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각각의 바위 밑을 팔 수 있는 만큼 판 다음 그 아래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셨습니다. 아빠는 다이너마이트를 정확하게 설치하심으로써 바위가 완전히 부서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빠가 도화선에 불을 붙일 차례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모두가 위험한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꽝!

첫번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먼지 구름이 피어 올랐습니다. 먼지가 가라 앉자, 바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땅에 패인 커다란 구덩이와 흩어진 작은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작은 돌들을 걷어내고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빠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시고 저는 부서진 돌들을 치웠습니다. 세 번째 바위를 폭파시키고 나자, 돌을 주워내는 일이 지루해졌고 "진짜"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일 말입니다. 저는 아빠께 다가갔습니다. "윌라드, 물러서!" 엄마가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아홉 살로서 맏이인 저는 아빠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쪽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마음 속에 가득 찼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속삭임이 마음 속에 들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폭파 지점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내가 상상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빠가 하고 계신 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제가 아빠를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느낌이 더욱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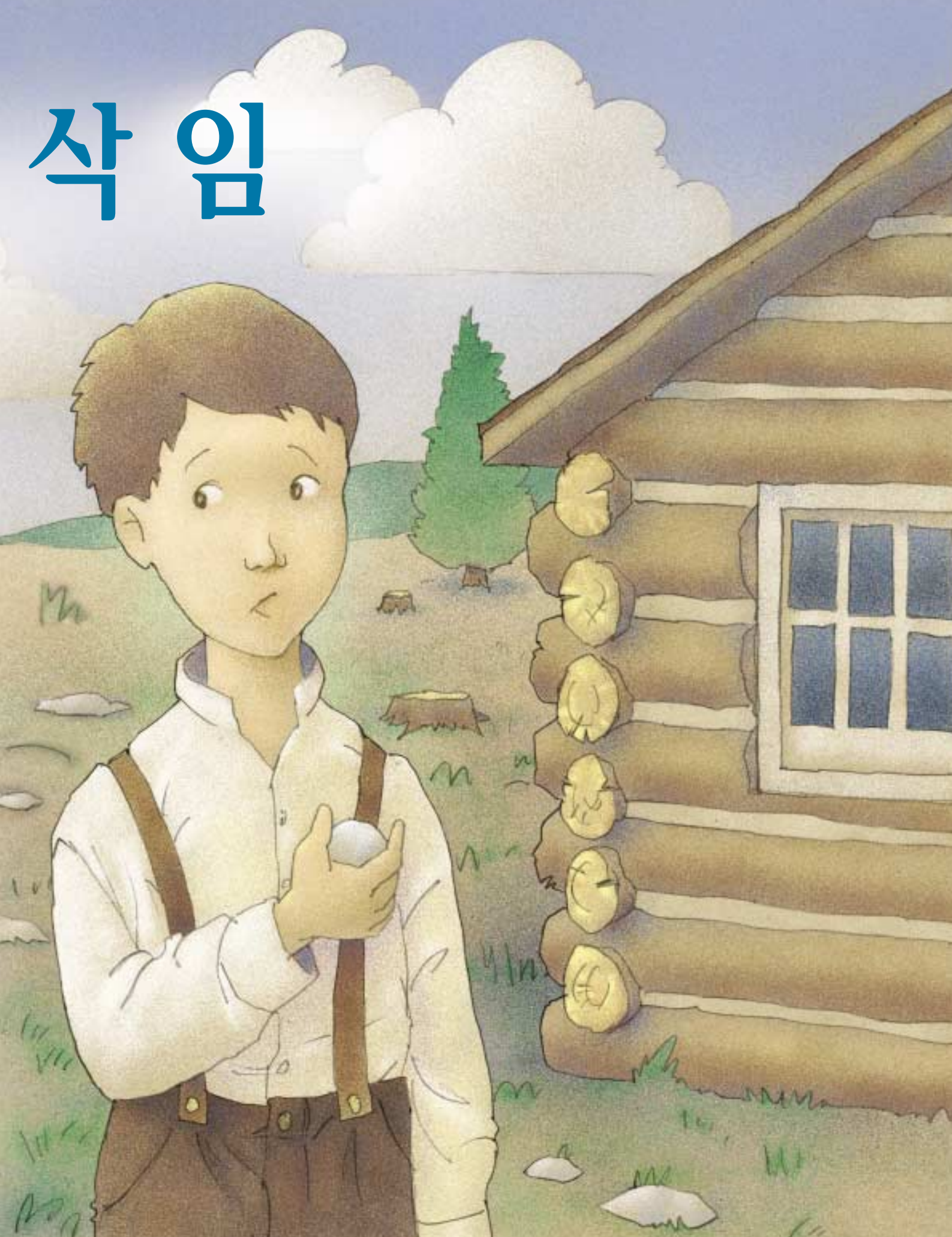
저는 아빠가 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할 때 해 주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분별의 능력을 축복하노라.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것은 그대를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하리라."

그 음성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것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속삭이는 그 음성을 더 이상 못 들은 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분별의 능력을 축복하노라.

그 말씀은 아빠가 일 년 전에 축복을 해 주셨을 때처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면,

삭 임



그 음성은 다른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빨래를 줄에 널고 있었고, 여동생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세 살짜리 하이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람! 하이람!" 저는 하이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먼 곳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람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통통한 다리로 뒤뚱거리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농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쫓아가면서 저는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라고 소리치면서, 아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는 등을 돌리고 서 계셔서, 저를 보거나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수 없었으며 재앙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하이람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이람을 잡는 순간 바위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몸을 날려 동생을 덮쳤으며, 할 수 있는 만큼 그의 몸을 가렸습니다.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머리, 등, 그리고 다리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이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워, 일어나." 하이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하이람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몸이 여기 저기 몹시 쑤셨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동생의 몸을 여기 저기 부드럽게 만져 보았습니다.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몸을 꿈틀거리다가 일어섰습니다. 동생의 턱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무서웠어."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라고 말하면서 저는 동생을 끌어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가 오셨습니다. 먼지와 때로 얼룩진 아빠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아빠는 커다란 팔로 우리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동생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라고 아빠가 물어 보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뭔가가 위험하다고 알려주었어요."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은 제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양심에 찔렸던 부분을 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바로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하이람이 멀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결코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아빠는 큰 손을 제 어깨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음성을 들었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깊은 숨을 돌리시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윌라드, 넌 아주 용감한 일을 했단다."

"아빠, 저는 기도를 드렸어요.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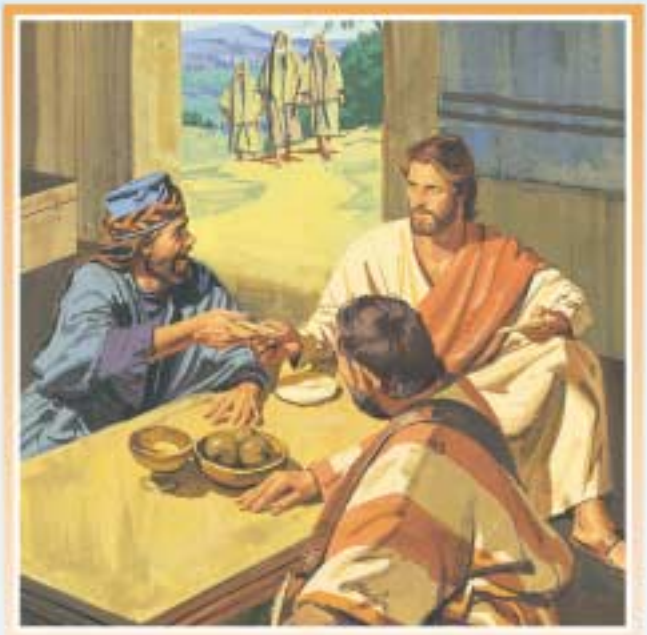
엄마와 여동생이 뛰어 왔습니다. 엄마는 울고 웃으시며 하이람과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곧 우리는 모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을 때 감미롭고 평화로운 느낌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 영의 속삭임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평소보다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

신약 성서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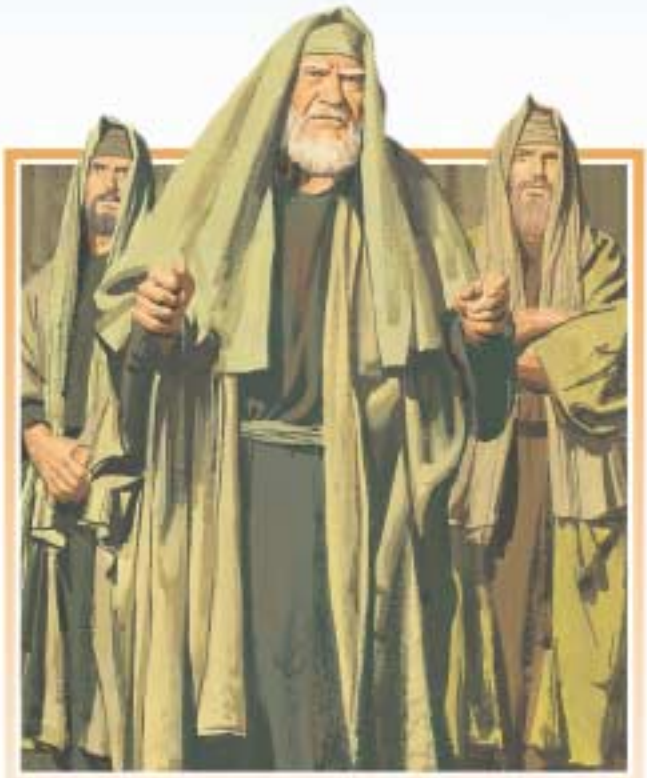
** 구세주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비유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다음 달 호의 친구들에 실립니다.*



삽화: 로버트 티 바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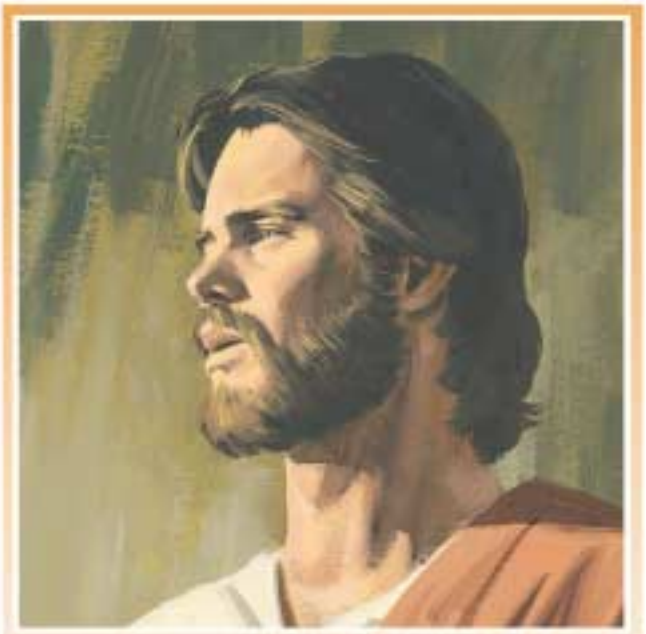
하루는 예수께서 몇몇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1~2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며, 선한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2



구세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이유를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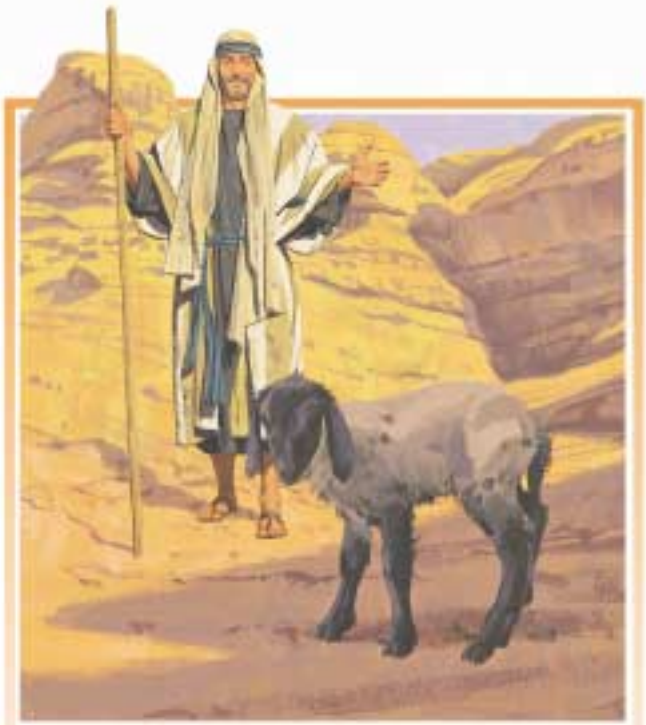
누가복음 15: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61쪽*

잃은 양

첫번째 비유

선한 목자에게 백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4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양을 찾았을 때 그는 무척 기뻤습니다.

누가복음 15:4~5

그는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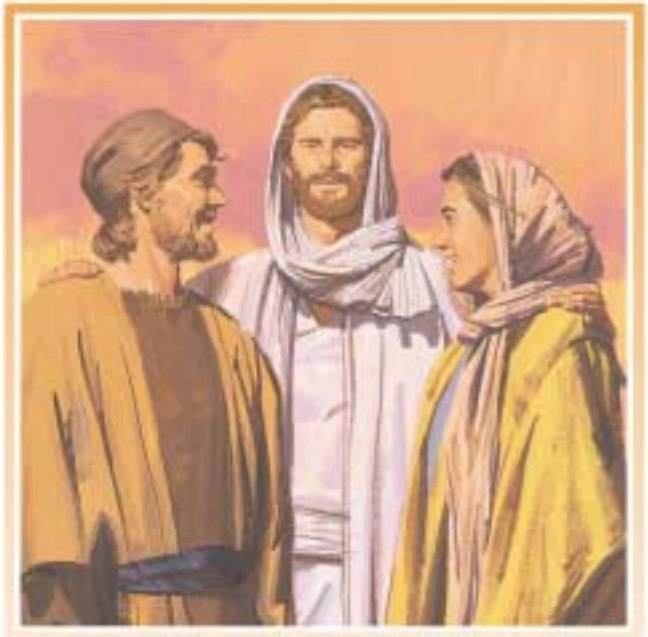
누가복음 15:5~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마치 잃은 양과 같으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7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17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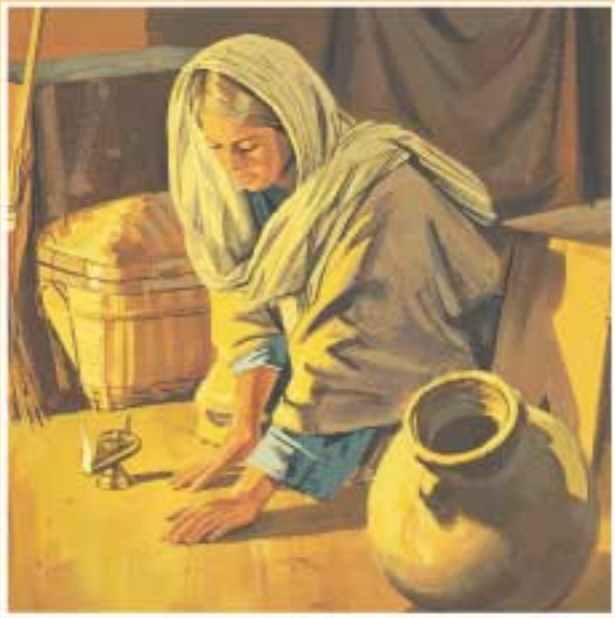
누가복음 15:6~7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죄인들과 이야기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18:11; 마가복음 2:17

잃어버린 은전

두 번째 비유



한 여인이 은전 열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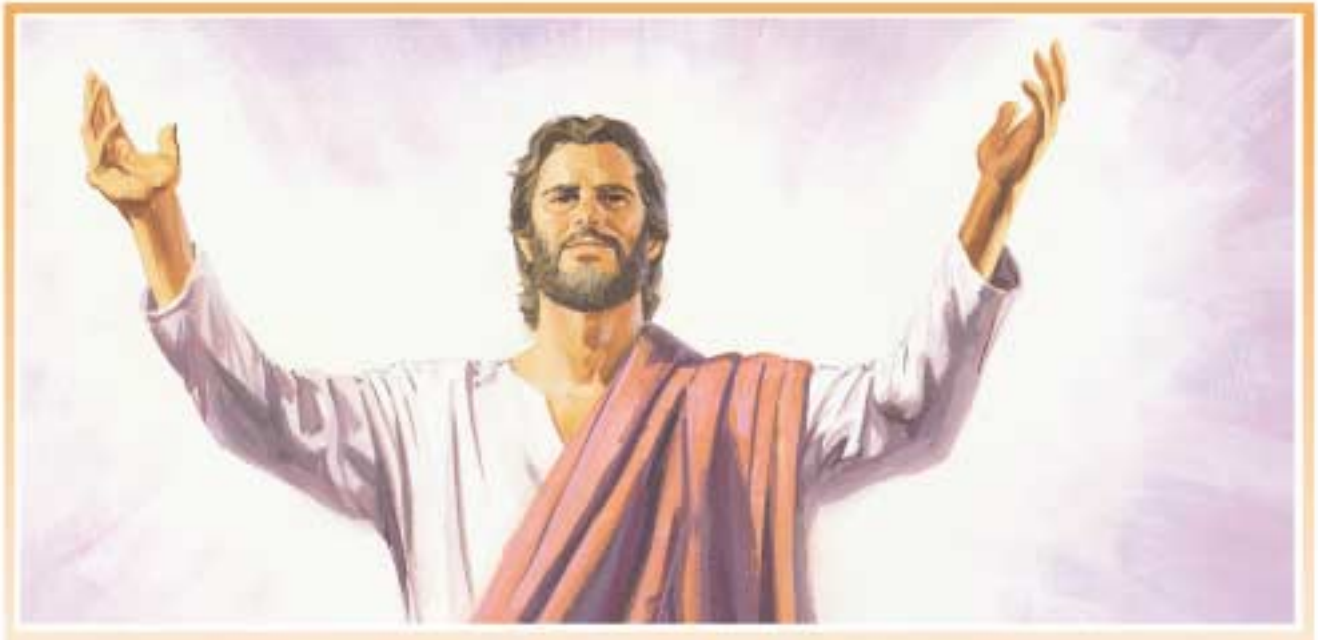
누가복음 15:8

드디어 그녀는 은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으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녀가 잃었던 은전을 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5:9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와 이웃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교회 회원을 다시 찾아 보살필 때 천사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10



교회 회원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과 같으며, 잃어버린 은전은 교회의 저활동 회원이나 잃어버린 회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회원들이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서 데려오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분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60~461쪽*

뉴스 속의 친구들

멕시코 로스 모치스 스테이크 알라메다 지부의 열 살 된 **아라셀리 아레돈도 가르시아**는 여덟 번째 생일을 맞고 10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아라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드로구에 스테이크 부르자코 와드의 열두 살 된 **호엘 카르도나**와 열한 살 된 **알란 카르도나**는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침례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신의 인도를 받으며 아론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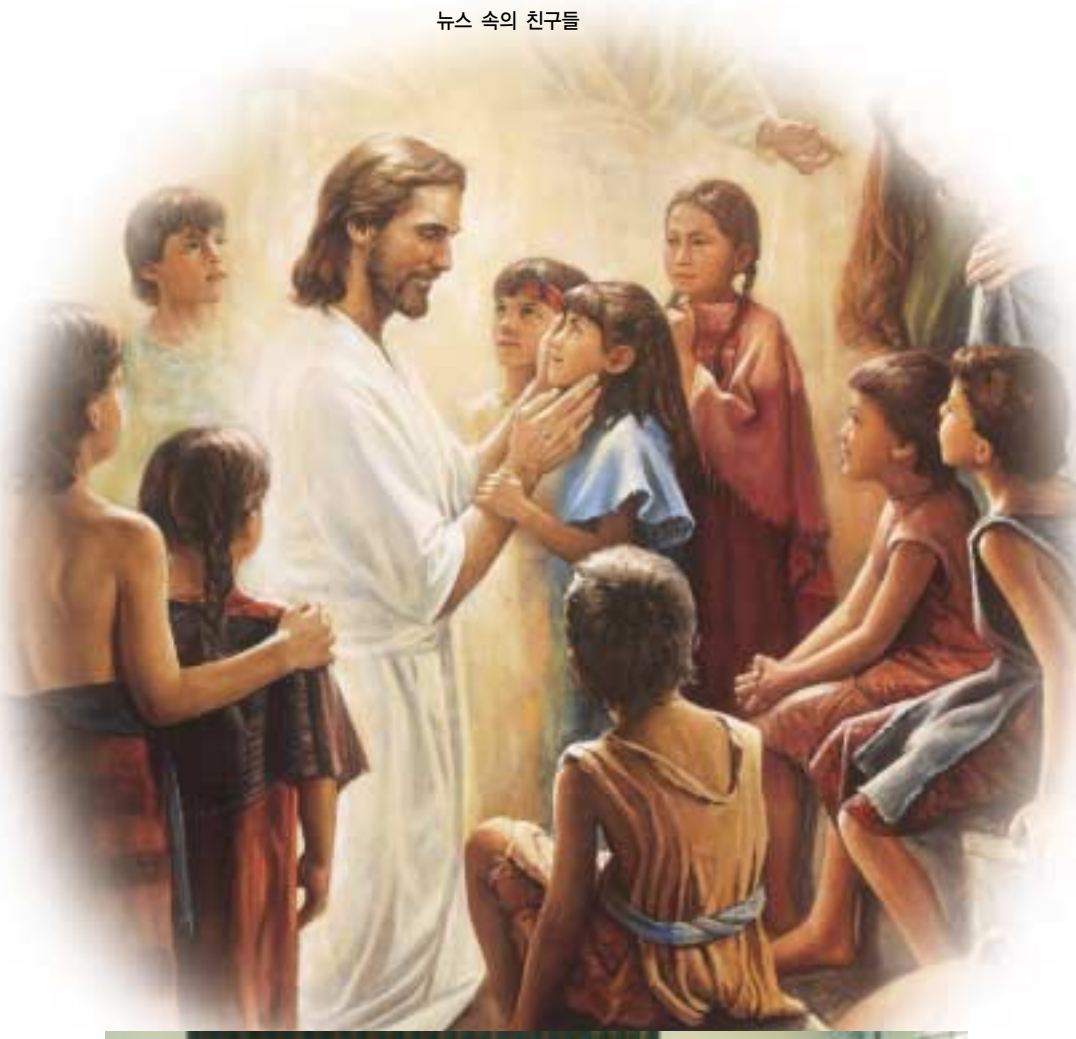


그림: 델 파슨, 그리스도와 몰몬경의 어린이들

베네수엘라 바르키시메토 스테이크 로스핀노스 와드의 어린이들은 성찬식 발표를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였다. 그들은 또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들의 모범은 발표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아르헨티나 퀼메스 스테이크 퀼메스 제 8와드의 여덟 살 된 **안드레스 로메우**는 훌륭한 학생이며 수학을 좋아한다. 그는 기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테이크 보르랑게 와드의 여덟 살 된 **미카엘 펠토코르피**와 여섯 살 된 **요한나 펠토코르피**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좋아한다. 궁핍한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모아 그 가족에게 주었다.

아르헨티나 플로렌시오 바렐라 스테이크 엘도라도 와드의 여덟 살 된 **하비에르 이바네스**는 초등회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는 최근에 귀환한 형처럼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어 한다.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스테이크 루쿵가 와드의 초등회 지도자들은 회원이 아닌 어린이들 28명을 포함하여 61명의 어린이를 위한 특별 활동을 계획했다. 그들은 여름 일일 캠프를 열었으며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신앙개조와 여러 경전 구절을 배웠다. 어린이들은 또한 연극과 촌극을 준비하여 발표했다.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라우엔부르크 지부의 어린이들은 노래 부르는 일과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진은 초등회 어린이들이 비회원 친구들을 초대했던 특별 초등회 활동에서 찍은 것이다.

우루과이 두라즈노 스테이크 사란디 델 이 지부의 초등회는 초등회 조직이 설립된 지 12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여 특별 모임을 가졌다. 최초의 초등회는 1878년 7월에 유타 주 파밍톤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집

비키 에프 마쯔모리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119)

여러분은 교회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2차 대전 당시 그의 비행사 동료들과 함께 6일 동안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으며, 목욕도 할 수 없었고, 군복도 세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저분하기도 하지!"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저분한 몸만큼이나 불편하며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옷이 더럽고 몸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한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깨끗해집니다. 계명을 지키고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침례 때의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다시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보고 들은 모든 것
이해할 수 있다해도
"깨끗하게 씻겼노라!" 이 두 낱말보다
더 고귀한 선물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깨끗하게 씻겼노라",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9~11쪽)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 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여 성전에 갈 때 외모나 내면이 모두 깨끗하다면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설명

15쪽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점선을 따라 성전을 오려낸다. 선에 있는 탭을 접고 풀칠을 하여 탭을 벽 안쪽에 붙여 상자 모양으로 만든다.(보기 참조) 성구 참조 벽돌을 오린다. 그것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데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다. 매일 하나의 벽돌을 선택하여 성구를 읽고, 그것을 성전 벽에 풀로 붙인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요한복음 2:14~17 참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신 것처럼 생활함으로써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대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해보라고 한다. 그 단어들을 열거한다. 열거한 단어들이나 다른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나는 성전에 갈 것이다. 그리고 _____ 할 것이다." 첫번째 어린이에게 공백을 채우게 한다. 두 번째 어린이는 첫번째 어린이가 쓴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단어를 더한다. 모든 어린이가 한 번씩 다 참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단어를 더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어린이들에게 출애굽기 3장 1~5절을 펴게 한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떨기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2~3절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묻는다.(4절을 읽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지 묻는다.(5절을 읽는다) 성전 신발을 보여주거나 그것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깨끗하고, 흰 신발을 성전에서 신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성전에서 신는 신발을 신지는 않지만 경건하게 행동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경건함을 보일 수 있는지 묻는다. 성전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경건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감독단이나 지부장단의 일원에게 그 그림을 제출한다. □

삽화: 토마스 에스 차일드

고린도전서 3:16~17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신앙개조 제4조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에 순종한다

시편 24:3~4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지닌다

출애굽기 20:15
도둑질하지 않는다

말라기 3:10
십일조를 바친다

마태복음 6:14~15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요한복음 13:34~35
서로 사랑한다

앨마서 53:20
항상 진실하게 행한다

교리와 성약 21:1, 4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인다

출애굽기 20:12
부모를 공경한다

출애굽기 20:7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교리와 성약 88:63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모사이야서 2:22
계명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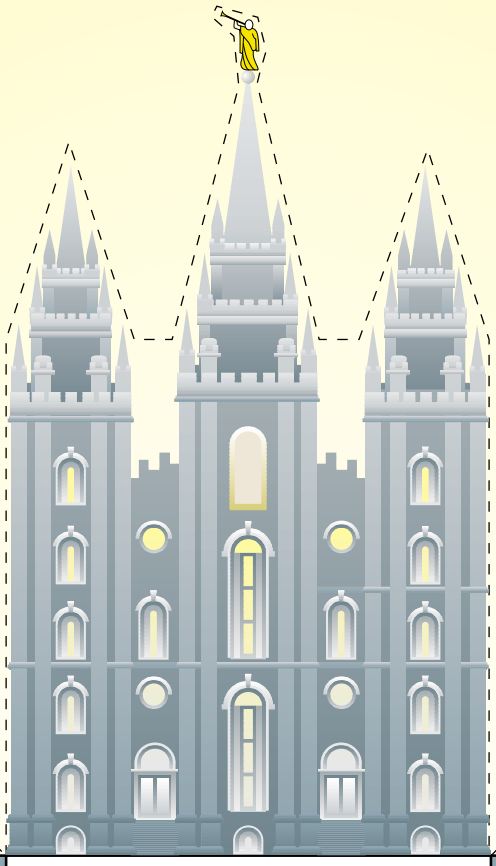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59:9~10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교리와 성약 89:7~9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다

니파이일서 3:7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한다

출애굽기 20:3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니파이삼서 14:12
친절하게 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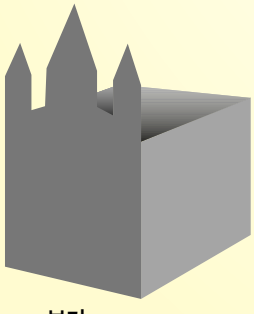


풀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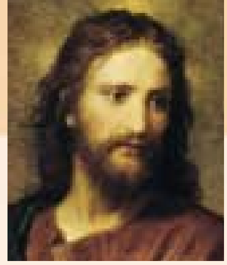
풀칠

풀칠

풀칠



보기



"나와 같은 자라야"

스펜서 제이 콘디
칠십인 정원회

독일에 살고 있는 동안, 콘디 자매와 저는 스위스에서 온 한 훌륭한 부부인 게오르그 비르스펠더 형제와 아나로에슬리 비르스펠더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1991년 2월, 성전에서 임무 교대를 마친 비르스펠더 부부는 성전 부근의 작은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한 노인이 운전하던 차가 길모퉁이에서 인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비르스펠더 자매를 들이받았으며, 그녀는 상점의 두꺼운 판유리 문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개골이 깨졌고 뇌진탕과 심한 안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7주 동안 그녀는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오르그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녀 곁에서 보내며 부드럽게 손을 쓰다듬어 주고 사랑과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사고가 난 지 2개월 후, 그녀는 말을 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어서서 몇 발자국씩 걷고 다시 영어, 독어,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상당한 고통을 느꼈으며,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운전사가 병원으로 그녀를 찾아 왔습니다. 법적 소송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일로 인해 저를 증오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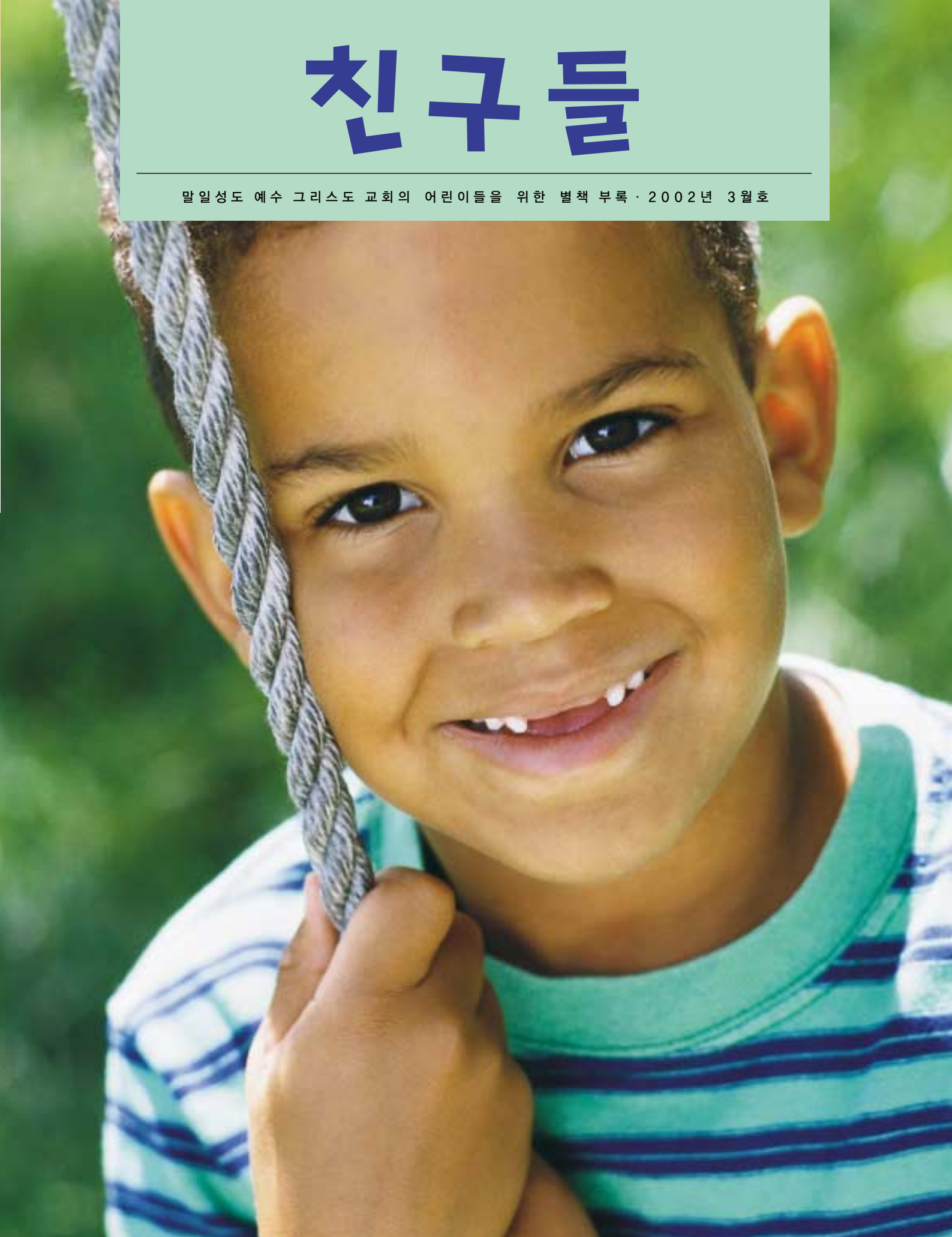
그는 그녀가 한 대답에 대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배웁니다. 전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날 무거운 짐을 내려 놓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 가운데서 베푸신 짧은 성역을 마칠 즈음에 다음과 같은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일이 잘못 되어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때,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에 관해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우리는 그분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

비르스펠더 형제와 자매는 후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봉사했다.

삽화: 제리 톰슨;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의 젊은 관원의 일부

친구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별책 부록 · 2002년 3월호